

| 해양사론 |



바타비아 호 복원선

해방사적 시각에서 본 목포의 해양전략적 가치

| 김주식 | 한국해양전략연구소 선임연구위원
kjoosik@hanmail.net

차 례

- | | |
|------------|------------------|
| I. 서론 | IV.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기 |
| II. 고려시대까지 | V. 광복 이후 |
| III. 조선시대 | VI. 결론 |

<국문요약>

제3함대사령부가 2007년 11월 15일 부산에서 목포로 이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령부를 다시 부산으로 환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아직까지 간혹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목포의 해양전략적 가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목포지역의 해양전략적 가치는 장보고시대(828~841)과 후삼국시대에 인정되었다. 조선시대에는 건국한지 80여년이 지난 후에 우수영이 설치되었지만, 목포지역의 수군전력과 해양전략적 가치는 감소해왔다.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기에는 일본인에 의해 목포 외해가 중시되었다. 광복 이후에는 해군기지가 두 번째로 목포에 설치되었고, 6·25전쟁 기간 중 적에게 점령되었을 때에는 해상이동사령부로 운영되기도 했다. 진해-서

해를 오고가는 모든 함정은 목포기지에서 군수지원을 받았다. 전후에는 목포기지의 격이 해역사령부-함대의 예하부대-함대로 부침을 겪었지만, 지금은 목포기지가 해군작전해역의 44%를 관할하고 있다.

노선과 범선시대에는 소극적이고 수비적인 해방정책이 전대되었지만, 목포진이 조선 말기까지 계속 유지된 사실은 목포연안지역이 해방의 일정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증기로 추진되는 철강함시대에는 일본인에 의해 목포 외해의 해양전략적 가치가 인식되어 외해가 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동해와 서해의 일부 그리고 남해 전체를 관할하는 함대사령부가 목포에 있다. 목포 앞 서남해역의 도서들을 본격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목포의 지리적 단점을 극복하고 해양전략적 가치를 더 높이는 방법이자, 부산으로의 함대 환원 주장을 무색하게 만드는 방법이기도 하다.

주제어 : 해양전략, 목포진, 3함대사령부, 목포기지, 서남해역

I. 서론

2007년 11월 15일 해군작전사령부가 진해에서 부산으로 이전되고, 제3함대가 부산에서 목포로 이전되었다. 그런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3함대를 부산으로 다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한편으로 주장자가 타성이나 관행에 젖어 있거나 편견을 갖고 있어서 나타나는 현상일 수도 있고, 다른 한편으로 목포의 해양전략적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잘못 알고 있는 데에서 비롯되는 현상일 수도 있다.

해양전략은 “평시 및 전시에 국가의 해양력을 운용하고, 해양을 사용하는 기술이며 과학이다”라고 정의된다.¹⁾ 따라서 해양력이 해양에 대한 종합적인 국가역량인 것처럼,²⁾ 해양전략도 군사, 정치, 경제, 정치외교, 문화, 과학기술, 산업, 교육 등 많은 분야를 포괄하고 있는 개념이다. 그런데 앞서 언급한 문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해양전략을 군사적 측면으로 한정시키는 협의적 개념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논문 제목에 “해방사적 시각에서 본”이라는 사족을 붙인 데에는 군사적 측면으로 좁혀 해양전략적 가치를 논해보겠다는 뜻이 담겨있다.

목포에 대한 대부분의 연구는 시기, 지역, 분야를 한정시켜 좁고 깊게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는 달리, 본고는 고대부터 현대까지 다루고 있어 산만성과 개설성이라는 약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이 고찰 방법을 택한 것은 목포의 해양전략적 가치가 어떻게 평가되어 왔는지 전체적인 흐름을 조명하고 또한 서두에서 언급한 주

1) 해군본부(2007), 『해군군사용어사전』, 해참교1, p. 670. ; 해군본부(2002), 『해군기본교리』, 기본교범(해교0), p. 부록-9.

2)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 지음, 김주식 옮김(1993),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1』, 밀리터리 클래식 5(책세상), pp. 76-153.

장들에 대한 답을 통시대적인 고찰을 통해 찾기 위함이다.

II. 고려시대까지

목포가 역사에 등장하는 시기는 비교적 늦은 편이다. “선사시대 혹은 삼국시대까지의 이 지역문화는 중앙권력과 거의 무관하게 독립적인 성격으로 존재하였고 또 대외교역이나 주변세력과의 영역의 교류는 활발하지 않았다. 따라서 영산강이 바다와 만나는 길목으로서의 목포는 그다지 중요한 위치는 아니었을 것이다.”³⁾ 『양서(梁書)』와 『주서(周書)』에 의하면, 6세기에 백제는 영토를 남쪽으로 확장하고 22개의 담로(擔魯)와 5방(五方)을 통해 지방제도를 구축하였다. 전남지역이 서남해안 해상교통의 요충지로 본격적으로 개발된 것은 바로 이 무렵이었다.⁴⁾

당시 사호강(沙湖江)으로 불리던 영산강(榮山江)은 항상 조공선이 출발했던 곳이다. 그리하여 일찍부터 “당과 신라 간 왕래선박의 발착점” 역할을 하였다. 영산강 유역이 발항지로 선정된 이유는 조공선을 쉽게 의장(儀裝)할 수 있고, 호남에 풍부한 물질이 있으며, 다도해 주민의 조선·항해지식이 뛰어나고, 한·중 양국을 도항하기 쉽다는 점이었다.⁵⁾

영산강 유역의 이러한 모습은 신라 말기인 9세기에 확연하게 나타난다. 장보고는 수군진인 청해진을 건설하고 서남해역의 해적을 소탕하여 제해권을 확보한 후, 이 제해권과 재당신라인을 이용하여 나·당·일

3) 李榮文 & 高龍圭(2005), 『목포진 정밀지표조사 - 목포진 역사공원화 조성사업 지표조사』, 목포시·목포대박물관, p. 15.

4) 姜鳳龍, “5-6세기 영산강유역 ‘甕棺古墳社會’의 해체,” <http://mnum.mkp.ac.kr/kangbr/웅관해체.htm>.

5) 木浦文化院(2000), 『國譯 史蹟木浦』, 郷土文化史料 4, pp 17과 21.

삼국의 증계무역을 독점적으로 실시하였다. 장보고가 활약한 시기가 828년부터 841년까지 불과 14년에 불과하지만, 장보고의 수군이 서남해 중심의 신라 해역과 삼국의 항로에 대한 제해권을 유지했다는 점에서 해양사적 의미는 ‘장보고시대’⁶⁾로 부를 수 있을 정도로 컸던 것 같다.

장보고시대보다 50년이 이후인 후삼국시대(892~936)에 태봉과 후백제는 나주 지역을 둘러싸고 공방전을 벌였다. 기존의 연구들은 태봉이 나주를 공략한 이유로 해상교통무역의 파괴, 후백제의 배후에 대한 위협과 교란으로 후백제 병력의 분산과 견제, 견훤 정권의 영토 확장 저지, 견훤의 중국과의 교통 차단 등을 위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점들이 “나주 공략의 전략적 목적이 아니라 나주공략의 승리로 말미암은 결과들”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 주장은 나주공략의 전략적 목표를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1단계(903년 이후)의 목표는 예성항 해상무역세력이 중요한 무역거래지역인 나주지역을 확보하는 것이었다. 2단계(909년 이후)의 목표는 예성강 해상무역세력이 무역활동을 지속하고, 군사적 수단으로 무역활동을 보장하며, 견훤의 나주 장악을 막으려는 것이었다. 3단계(914~918년)의 목표는 나주를 자국 영토로 만드는 것이었다.⁷⁾

근래에 이르러 태봉과 후백제의 나주공방전이 지닌 해양전략적 가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주장이 나왔다. “우선 이 지역이 서해안 지방에 대한 해상권을 장악하고 나아가 남해안 지방에까지 그 권한을 확대시킬 수 있는 전략거점이라는 점이다. … 후백제의 대중국교섭활동을 고립시켰다. … 서해 해상세력의 포섭과 통제활동으로 수군활동을 실행할 수 있는 기반으로 삼고, 서해상으로 해상권을 점차 확대시켜 나갔

6) 김주식·정진술 공저(2001), 『장보고시대』(신서원), p. 10.

7) 김주식·정진술(2000), “장보고와 이순신 양시대의 해양사적 연계인물 연구 - 왕건 해상세력의 성장과 나주해전을 중심으로,” 『海洋研究論叢』, 제25집, pp. 172-175.

다. ... 해상권 확대노력은 고려왕조에서도 계승되었고 ... 강주는 ... 해상교통로를 안정적으로 보호하는 전략거점이기도 했다. ... 건국 이후 나주지역에 대한 지방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사람과 물자의 통항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서남해역 해상교통로는 더 안정적인 형태로 관리되었다. ... 나주지역은 통일전쟁의 경제·군사적인 재원을 확보 및 공급하는 공간으로도 그 가치가 중시된 곳이었다.”⁸⁾

나주공략에 대해 이처럼 다양한 견해가 나오는 것은 무엇보다도 관련 자료의 부재 때문이다. 『삼국사기』와 『고려사』 같은 자료를 통해 나주공략의 전개 과정을 대충 알 수 있지만, 왕건이 나주를 공략한 이유와 나주 공략의 성공 원인을 찾아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왕건의 선조들이 실시한 해상활동, 장보고시대와 나주 공략의 시간차가 50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 국제해상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국내연안무역의 활성화와 연안무역기지의 설치 및 다른 지방민의 협력활동이 필요하다는 점 등으로 예상강 해상무역세력과 일부 서남해 해상무역세력 간의 연대감이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 같다.⁹⁾

삼별초는 강화도에서 진도로 이동하여 1270~1271년의 만 1년 동안 진도정부를 수립하였다. “진도의 삼별초가 진도 거점 초기에 승부를 걸었던 것은 나주지역의 확보였다. 나주지역의 확보는 서남부 본토의 일정 영역을 확보하는 동시에 영산강 유역의 장악에 의해 남부지역의 조운시스템을 확보하고, 여몽군의 공격에 대해서도 군사적 방어의 효율성을 높인다는 점에서 극히 중요한 사안이었다.”¹⁰⁾ 그러나 삼별초가 진도

8) 신성재(2011), “후삼국시대 나주지역의 해양전략적 가치,” 『도서문화』, 제38집, pp. 119-120.

9) 金州植(2004), “張保臯의 海上貿易基地 設置와 그 位置에 대한 研究,” 『장보고연구논총』, 해군사관학교·해군해양연구소 장보고연구 III, pp. 9-67.

10) 윤용혁(2011), “고려 삼별초의 항전과 진도,” 『도서문화』, 제37집, p. 90.

의 해양전략적 가치를 어떻게 파악했는지는 삼별초가 진도를 택한 이유가 밝혀지지 않고 있어 사실상 알기 어렵다.¹¹⁾

고려 말기에는 왜구의 침구활동이 극성하였다. 1383년(신우 9) 5월 정지(鄭地) 장군은 원래 전함 47척을 이끌고 나주목포(羅州木浦)에 주둔하고 있다가 왜구의 침구소식을 듣고 급히 출항하여 관음포(觀音浦) 해전에서 승리하였다.¹²⁾ 1390년(공양왕 2, 경오 2년) 1월에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의 해로와 연해 각처에 모두 만호(萬戶)를 두었으며, 5월에는 왕강(王康)을 전라경상양광삼도수군체찰사(全羅慶尙楊廣三道水軍體察使)로 임명하였다.¹³⁾ 1391년(공양왕 3년)에는 무안현(務安縣)의 성산(城山)과 극포(極浦) 그리고 함풍현(咸豐縣)의 영풍(永豐)과 다경(多景) 및 해제(海際)의 권농방어사(勸農防禦使)를 감무(監務)로 하여금 겸하게 했다.¹⁴⁾ 이러한 기사들은 고려 말에 나주목포지역이 전함 47척이 주둔할 정도로 수군의 선창 역할을 하고 있었으며, 각 처에 만호와 권농방어사라는 수군장이 배치되어 활동하고 있었음을 뜻한다.

III. 조선시대

조선 초기에는 전라수영이 옥구(沃溝, 현 군산)에 있었다. 수영 휘하

11) “반면 육지에 뾰족한 진도는 그 방어적 측면에서 제주도에 훨씬 미치지 못하지만 본토와 연계해 있다는 점에서 내륙지역에 대한 영향력을 지속적으로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이 점 고려 정부의 정통성 계승이라는 측면을 더욱 강조할 수 있는 입장에 설 수 있게 한다.” 윤용혁(2000), 『고려 삼별초의 대몽항쟁』(일지사), p.159. 이 주장도 추측에 불과하다.

12) 『고려사』, 권 제113, 열전 제36, 정지.

13) 『고려사』, 세가 권 제45 공양왕1, 경오 2년 정월 정해일.

14) 『고려사』, 권 제57 지제 11 지리 2, 무안군과 함풍현. 監務는 1108년(예종 3) 작은 현에 설치된 5·6품의 관직명이었다(『고려사』, 권 제77, 지제 31, 외직 제현).

의 각 수군진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태종대의 왕조실록에 나타나는 것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도만호(都萬戶) : 좌도(左道, 龍門浦), 우도(右道, 黔毛浦)

만호(萬戶) : 진도(珍島), 흥덕(興德), 낙안포(樂安浦), 녹도(鹿島), 법성포(法聖浦), 탐라포(耽津浦), 돌산포(突山浦), 광양포(光陽浦), 어란양(於蘭梁), 달랑(達梁)

기타 : 수군첨절제사(水軍僉節制使), 아용포(阿容浦, 군선), 주포(周浦, 병선), 진포(鎭浦),

목포(木浦), 검모포(黔毛浦)¹⁵⁾

옥구에 있던 수영은 1408년에 대굴포(大堀浦, 현 咸平)로 이전되었다. 이것은 해방(海防)의 중심이 전라도 서해안의 최북단에서 최남단으로 이동했음을 뜻하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상소 때문이었다.

전라도 수군 도절제사(全羅道水軍都節制使)가 사의(事宜)를 두어 조목을 올렸다. “... 옥구(沃溝)의 수영(水營)은 해로(海路)의 중앙이 아니기 때문에 진수(鎭戍)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비읍건대, 수영(水營)을 모두 옥구진(沃溝鎭)에 붙이고, 해도(海島)의 중앙인 무안현(務安縣)의 대굴포(大堀浦)로 수영을 옮기소서. ...”¹⁶⁾

수영이 대굴포에 있던 시기에 예하 수군진은 다음과 같았다.

15) 李榮文 & 高龍圭(2005), 『목포진 정밀지표조사 - 목포진 역사공원화 조성사업 지표조사』(목포시·목포대박물관, p. 21에서 발췌하였다.

16) 『조선왕조실록』, 태종 8년, 12/24(정유).

수군처치사영(大堀浦)

- 우도도만호영(원포 : 垣浦) → 만호영(萬戶營) : 목포(木浦), 다경포(多慶浦), 법성포(法聖浦), 검모포(黔毛浦), 군산(群山)
- 좌도도만호영(여도량 : 呂島梁) → 만호영(萬戶營) : 내례(內禮), 돌산(突山), 축두(築頭), 녹도(鹿島), 회령포(會寧浦), 마도(馬島), 달량(達梁), 어란(於蘭)¹⁷⁾

그러나 대굴포가 수영이 있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기 때문에 병선 주둔지를 변경하지는 건의가 22년 이후인 1429년에 있었다.

“지금 수군처치사(水軍處置使)와 함께 사량(蛇梁)의 병선(兵船)을 독대량(獨臺梁)으로 옮겨 정박시키는 것의 편부(便否)를 살펴보니, 독대량에 배를 정박시키는 것이 비록 쉽지마는, 왜적(倭賊)이 처음 이르는 길이 아니므로, 혹시 적의 변경이 있으면 시기에 미쳐 추격해 잡지 못할 것이니 그전대로 하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다만 처치사(處置使)의 병선(兵船)이 정박하는 대굴포(大掘浦)는 다만 배를 정박하는 곳이 깊고 멀 뿐만 아니라, 개(浦)가 또한 굽고 좁아서 또한 그때그때에 응변(應變)하기가 어렵사오니, 청하건대 처치사(處置使)의 영(營)에 따른 병선(兵船)은 난량(蘭梁)으로 옮겨 정박시키고, 난량의 병선은 달량(達梁)으로 옮겨 정박시키고, 달량(達梁)의 것은 마량(馬梁)으로 옮기고, 마량(馬梁)의 것은 회령포(會寧浦)로 옮기고, 회령포의 것은 녹도(鹿島)로 옮기고, 녹도의 것은 축두(築頭)로 옮기고, 축두의 것은 사량(蛇梁)으로 옮기고, 사량의 병선은 변경에 대응(對應)할 수 있는 요해지(要害地)인 여도(呂島)로 옮겨 정박시키는 것이 편리하겠습니다.” 하니, 명하여 병조(兵曹)에 내리게 하였다.¹⁸⁾

17) 『조선왕조실록』, 세종실록 지리지.

18) 『조선왕조실록』, 세종 11년, 4/12(정해), 전라도 감사의 치계.

3년 후인 1432년에도 수영의 위치에 대한 재고가 논의되었다.

“전라처치사(處置使)의 군영(軍營)에 목포 만호(木浦萬戶)는 지키는 것이 포구(浦口)에 있는데도 대굴포(大堀浦)에 깊숙이 들어가 있으니, 바다에 떨어지기가 거의 2식경(息頃)이나 됩니다. 평상시에 출입하여도 오히려 두 번이나 조수(潮水)를 겪어야 되는데, 불행히도 바람을 만난다면 하루 이틀 동안에 능히 바다에 이르지 못할 것이니, 혹시 창졸의 변고가 있으면 어찌 능히 시기에 맞추어 변고에 대응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처치사(處置使)의 병선(兵船)은 모두 단단하고 날랜 것이 많으며, 그 수효가 각 포(浦)의 것보다 배나 되는데, 항시 깊은 포구에 정박하여 쉽사리 출입할 수가 없게 된다면 장차 소용이 없는 기구가 될 것이니, 이것이 신이 상시 근심하여 진술하기를 원하옵는 것입니다. 신이 가만히 듣자옵건대, 바다 가까이 이관(移管)했는데 또 해문(海門)에 나가지 않고 겨우 예전 장소로 옮기었다 하니, 과연 소문과 같다면 신은 한갓 백성의 힘만 허비하고 적군에게 대비하는 데는 이익이 없을 것을 염려합니다. 신이 일찍이 그 도의 도만호(都萬戶)의 임무를 맡아서海道(海道)의 일을 대강 알게 되고, 또 병마절제(兵馬節制)의 임무를 맡아서 육지(陸地)를 수비하는 방법을 알게 되었는데, 만약 다경포(多慶浦)·말흘포(末訖浦)·목포(木浦)·주이포(周伊浦) 등지의 도내 요충지에 수세(水勢)가 또한 순하고 전함(戰艦)의 출입도 편이하니, 기회를 타서 적군에게 대응(對應)할 곳이라 하겠습니까. 원컨대 조신(朝臣)을 보내어 그 편리하고 편리하지 않은 점을 살펴서, 요해지(要害地)를 골라 지켜서 변경(邊境)을 튼튼하게 하는 것이 신의 바라는 바입니다.” 하니, 병조에 내리어 제조(諸曹)와 함께 의논하여 아뢰도록 하였다.¹⁹⁾

19) 『조선왕조실록』, 세종 14년, 8/5일(신묘), 이각(李恪)의 상서.

그로부터 약 35일 후인 9월 9일에 도순찰사(都巡察使) 정흠지(鄭欽之)를 전라도에 보내어, 대굴 수영(大堀水營)을 옮겨 배치할 장소를 살펴보게 하였다. 정흠지(鄭欽之)는 명령을 수령한 후 약 40일 후에 현지 실사의 결과를 보고하였다.

“본도의 수영(水營)을 목포(木浦)에 옮겨 설치하고, 목포의 병선(兵船)을 황원(黃原)의 남면(南面) 주량(周梁)에 옮겨 정박(碇泊)하게 하고, 진도(珍島)의 서면(西面) 소가포(蘇可浦)에 수영(水營)의 병선 3, 4척을 매달 윤번으로 세워 정박하여 수호하게 하옵소서.” 하므로, 이를 의정부·제조(諸曹)·삼군도진무(三軍都鎭撫)에 명을 내려 함께 의논하게 하니, 모두가 “아뢰 바에 따르심이 옳겠나이다.” 하므로, 그대로 좇았다.²⁰⁾

전라수영은 목포로 이전한지 56년 후인 1479년에 전라좌수영과 전라우수영으로 양분되었으며, 이때 목포는 만호진이 되고, 주량은 전라우수영으로 승격되었다.

병조(兵曹)에서 전라도 순찰사(全羅道巡察使) 이극배(李克培)의 계본(啓本)에 의거하여 아뢰기를, “우리나라에 만약 왜변(倭變)이 있으면 전라좌도(全羅左道)가 반드시 먼저 적(敵)을 받을 것이니, 청컨대 내례포(內禮浦)에 주진(主鎭)을 두어 수군절도사(水軍節度使) 1원(員)을 설치하여 변경의 방비를 견고히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²¹⁾

이 무렵 수영 예하의 수군진은 다음과 같았다.

20) 『조선왕조실록』, 세종 14년, 10/20(을사).

21) 『조선왕조실록』, 성종 10년, 1/6(계해).

절제사영(節制使營) : 우수영(右水營, 海南)

- 첨사영(僉使營) : 임치(臨淄)

- 만호영(萬戶營) : 목포(木浦), 다경포(多慶浦), 법성포(法聖浦), 검모포(黔毛浦), 군산포(群山浦), 어란포(於蘭浦), 금갑도(金甲島), 남도포(南桃浦)

절제사영(節制使營) : 좌수영(左水營, 順天)

- 첨사영(僉使營) : 사도(蛇島)

- 만호영(萬戶營) : 돌산포(突山浦), 여도(呂島), 발포(鉢浦), 회령포(會寧浦), 마도(馬島), 달량(達梁)²²⁾

그러나 수영 예하의 수군진은 이후에도 조금씩 계속 변화를 보이다가 1744년에는 다음과 같이 확정되었다.

절제사영(節制使營) : 우수영(右水營, 海南)

- 첨사영(僉使營) : 임치(臨淄)

· 동첨사영(同僉使營) : 임자도(荏子島)

· 만호영(萬戶營) : 목포(木浦), 다경포(多慶浦), 검모포(黔毛浦), 지도(智島)

- 첨사영 : 위도(蝸島), 고군산도(古群山島)

· 만호영(萬戶營) : 군산(群山), 법성포(法聖浦), 명월포(明月浦, 濟州)

· 별장영(別將營) : 고돌산(古突山)

절제사영(節制使營) : 좌수영(左水營, 順天)

- 첨사영(僉使營) : 사도(蛇島), 방답(防踏)

· 만호영(萬戶營) : 여도(呂島), 발포(鉢浦), 녹도(鹿島), 회령포(會寧浦), 마도(馬島), 금갑도(金甲島)

22) 『경국대전』

- 첨사영(僉使營) : 가리포(加里浦)
- 만호영(萬戶營) : 어란포(於蘭浦), 고금도(古今島), 이진(梨津), 신지도(薪智島)²³⁾

이와 같은 전라도의 수군진 수를 도표화 하면 <표 1>과 같다.

<표 1> 전라도 수군 진영 수의 변화

| 시기 | 출 처 | 진 영 | | |
|------|----------|-----|-----------|--------------------------|
| | | 총 수 | 전라도 수(%) | 서남해역 (전라도 % ; 총 척수 %) |
| 1408 | 태종실록 | | 13 | 2 (15.4 ;) |
| 1454 | 세종실록 지리지 | 72 | 16 (22.2) | 5 (31.3 ; 6.9) |
| 1485 | 경국대전 | 72 | 18 (25.0) | 7 (38.9 ; 9.7) |
| 1744 | 속대전 | 94 | 27 (28.7) | 8 (29.6 ; 8.5) |

조선 초기에는 전라도의 수군 진영 수가 조금씩 증가하였으나, 조선 후기에 이르면 그 수가 대폭 증가하였다. 그러나 전라도의 수군 진영 수가 수군 진영의 총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조금 증가하였다. 또한 어란포에서 임치진에 이르는 서남해역에 설치된 수군 진영의 수는 조선 초기에 비교적 많이 증가하다가 후기에 이르러 증가 폭이 적었다. 이러한 현상은 서남해역의 수군 진영이 전라도 수군 지영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조선 초기에 계속 증가했지만, 후기에 이르면 오히려 감소하였음을 의미한다. 서남해역의 수군 진영이 수군 진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도 같은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23) 『속대전』

〈표 2〉 전라도 수군이 보유한 전선 수의 변화

| 시기 | 출 처 | 전 선 | | | |
|------|----------|---------|---------------|-----------------------------|-------------------------------|
| | | 총 척수 | 전라도 척수 (%) | 서남해역 (전라도 % ; 총 척수 %) | 목포진 척수 (전라도 % ; 총 척수 %) |
| 1408 | 태종실록 | 428 | 81 (18.9) | | |
| 1454 | 세종실록 지리지 | 829 | 165 (19.9) | 62 (37.6 ; 7.8) | 8 (4.8 ; 1.0) |
| 1485 | 경국대전 | 737 | 184 (25.0) | 56 (30.4 ; 7.6) | 6 (3.3 ; 0.8) |
| 1744 | 속대전 | 776 | 214 (27.6) | 55 (25.7 ; 7.1) | 5 (2.3 ; 0.6) |

전선 보유수를 비교해보면, 전라도의 전선 수와 그리고 그 전선 수가 수군이 보유한 전선 총수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모두 증가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조선 전기에 비해 후기의 수적 증가 폭이 매우 큰 것에 비해 비율 증가의 폭은 아주 작았다. 서남해역 수군 진영들이 보유한 전선의 수와 비율은 전체적으로 갈수록 줄어들고 있었으며, 그것이 전라도 전선 총수와 수군 전체의 전선에서 차지하는 비율의 감소 폭은 수적 감소의 폭보다 더 컸다. 목포진의 경우도 보유 전선의 수와 비율이 모두 감소하고 있었다.

수군 진영과 보유 함선에서 나타나는 이러한 변화는 전라도 수군의 전력이 소폭의 비율로 증대하고 있었지만, 서남해역과 목포진의 전력은 조선 후기에 이르러 오히려 더 감소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해방사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것은 조선시대에 전라도의 해양전략적 가치가 조금씩 커져갔지만, 서남해역과 목포지역의 해양전략적 가치는 오히려 적어졌음을 뜻한다.

IV.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기

목포항은 1894년 8월에 체결된 「조일잠정합동조관(朝日暫定合同條款)」에 의해 개항되었다. 이 조약의 4항에는 전도 연안 통상항구 중 1곳(通商口岸一處)에 대한 개항을 규정하고 있었다. 일본이 전라도의 개항을 요구한 이유 중 하나는 무역항의 필요성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통어항(通漁港)의 필요성이었다. 무역항은 호남 쌀의 수입에 중점을 두는 것이었고, 통어항은 다수의 일본 어선(2000척)이 조선에 출어하여 건어물로 만들어 청국에 팔기 위한 건어장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일본은 1894년 12월 현지답사를 통해 목포를 최적지로 선정하였다.²⁴⁾

그러나 해방사적인 관점에서 보면, 목포를 무역항으로 선정한 이유를 항구로서의 지리적 장점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일본의 입장에서 볼 때, 이 해역이 중국대륙으로 나가는 먼 바다와 목포를 비롯한 한반도 육지부와 연결되는 시하바다로 통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²⁵⁾ 이 주장은 일본 해군이 러일전쟁을 발발하기 이전에 목포 앞바다의 옥도(玉島)에 팔구포방비대(八口浦防備隊)를 설치한 사실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팔구포 해역이 일본해군에 의해 실제로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 더 이전부터였던 것으로 보인다. 개항된 1897년보다 이전인 1894년 청일전쟁시기부터였다.” 그 근거는 “1894년 청일전쟁이 발발하자 갑자기 필요성이 있어 서둘러 팔구포나 목포 근해를 전쟁 중에 측량했다는 1930년 『목포부사(木浦府史)』의 기록이다.”²⁶⁾ 그런데, 청일전쟁 기간 동

24) 崔在洙·李源哲(1997), 『開港期 이후의 木浦港과 木浦港의 비전』(사단법인 목포백년회), pp. 45-46.

25) 최성환(2011), “러일전쟁기 일본해군의 玉島 八口浦防備隊 설치와 활용,” 『도서문화』, 제38집, p. 216.

26) 같은 논문, p. 219.

안 서남해와 관련된 몇 가지 일본자료에는 다음과 같이 기술되어 있다.

1894년 7월 23일 함대는 ... 사세보(佐世保)를 출항하였고, ... 다음날인 24일 오전 9시 제1유격대는 명령을 받고 전라도 남해안 장직로(長直路)를 정찰하여 이정(異情)을 확인하고 침로를 군산 앞바다로 바꾸었다. 또 다시 앞길의 정찰 임무를 받은 제2유격대와 운송선대는 함대에 앞서 싱글수도(Single水道)를 통해 그리고 본대는 흑산도와 수로군도(水路群島) 사이를 우회하여 군산 앞바다에서 서로 만나고, 25일 오후 2시에 이곳에서 정박하였다. 그날 5시 50분, 함대 근거지의 예정지인 격음군도(隔音群島)를 측량하기 위해 제2유격대를 파견하였다. 그보다 이른 오전 4시 30분, 제1유격대는 안면도 서쪽에 있는 베이커 섬 부근에서 야에잔함(八重山艦)과 무사시함(武藏艦)을 수색했으나 발견하기 어려워 풍도(豊島) 부근으로 향진하였다. 풍도 부근에도 베이커 섬으로 불리는 작은 섬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 야에잔함이 그곳에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²⁷⁾

7월 23일 연합함대는 조선 서해안을 향해 전력을 다해 사세보를 출항하였다. ... 또 츠쿠시함(筑紫艦)과 아카기함(赤城艦)은 함대의 근거지로 정한 천수만(淺水灣)을 측량하기 위해 먼저 떠났다. ... 24일 오전 9시 제1유격대를 분리하여 장직로(長直路)를 정찰하게 하고 ... 본대는 25일 14시에 제2유격대와 더불어 군산 앞바다에 가막(假泊)했는데, 이날 17시 50분 제2유격대를 분리하여 격음군도 부근을 측량하게 했다.²⁸⁾

연합함대는 1895년 2월 6일 사세보 군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7일 오

27) 阪谷芳郎(1930), 『大日本海戰史談』(財團法人 三笠保存會 : 東京), pp. 132-133.

28) 外山三郎(1979), 『日清・日露・大東亞海戰史』(原書房 : 東京), p. 78.

후 3시에 조선의 남서쪽에 있는 싱글수도에 집합하였고, 여순과 인천의 근황을 확실히 알고 있는 도고(東郷) 사령장관은 여기에서 명령하여 항행서열을 정한 후, 천우신조를 믿으며 대성공을 거둘 것이라고 혼시했다. 이때 부근에 있는 칠발도(七發島) 남쪽에서 기선 1척이 남쪽으로 항해하는 것을 발견한 우에무라(上村) 제2함대 사령장관은 아즈마함(吾妻艦)을 시켜 이를 추적하게 하여 러시아 상선 아르군호인 것을 알고 즉시 나포하였다.²⁹⁾

앞 2개의 인용문은 풍도해전(豊島海戰) 직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일본 연합함대는 사세보를 출항하여 신지도와 조약도 사이의 장직수로(長直水路)를 정찰하고, 싱글수도³⁰⁾를 거쳐 군산에서 정박하였으며, 그 후 고군산군도를 지칭하는 격음군도를 정찰하였다. 또한 함대의 근거지로 정한 천수만을 측량하였다. 세 번째 인용문은 여순항 입구를 공격하기 직전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에는 연합함대의 집결지가 싱글수도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러일전쟁 기간에는 팔구포방비대나 옥도에 대한 자료가 훨씬 많이 나타나고 있다. 1902년 6월 25일자 『주한일본공사기록』에는 “해군성이 출판한 한국해도에 따르면 1894-5년 전쟁 때 우리 함대의 제1근거지로 집합되었습니다”와 “이미 지난해 우리 함대가 이 방면으로 왔을 때에는 팔구포에 집합하였습니다. 그때에도 동지(同地)는 해군의 근거지로서 가장 필요하고 어떠한 큰 군함이나 거대한 선박일지라도 출입이 자유로우며, 또 포내(浦內)가 빈번할 때는 타방면으로부터 규지(窺知)할 수

29) 阪谷芳郎(1930), 『大日本海戰史談』(財團法人 三笠保存會 : 東京), p. 261.

30) “조선 남서해안 맹골군도(孟骨群島)와 우이군도(牛耳群島) 및 대흑산도(大黑山島)와 소중관군도(小中關群島) 사이를 싱글수도(Single 水道)라 하고, 싱글도(道)는 그 중앙에 위치하여 시모노세키(馬關) 방면에서 인천-대동강을 향하는 선박의 일반 항로임.” 해군본부(2006), 『명치 37, 38년 해전사』, 일본일반도서 06-1, 상권, p. 38, 주 15.

없다는 것입니다”라는 기록이 포함되어 있다. 1904년 2월 27일 전라도 관찰사 이근교(李根敎)는 “옥도 갈두 부근에 배 6척이 오고 계속해서 큰 배가 도착”했다고 보고했으며, 3월 7일에는 “옥도를 정탐한 서기 안흥진(安興珍)의 보고를 살피니 … 일본군함은 50여척에 이르고 … 통신선로가 어느 곳과 통하는지는 알 수 없으나 갈두지(葛頭地) 부근에 포를 설치”했다고 보고하였다. 김윤식의 『속음청사(續陰晴史)』 1904년 3월 2일자 기록에는 “일본함대는 이곳을 근거지로 삼았다. 거함 수 십척이 항상 이곳에 모여 정박되어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³¹⁾

그런데 러일전쟁과 관련된 일본의 서적들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1903. 12/30 육해군합동작전회의 서전(緒戰) 지도방침 합의

(1) 제1, 2함대는 적의 여순함대와 결전을 시도한다. 이를 위해 사세보(佐世保)를 출항하여 우선 목포(木浦) 부근에 집결하고, 제3일 주력을 여순에 도착하게 한다는 예정이지만 적함을 불의에 급습할 수 없으면 목포 부근의 근거지에 이르러 정찰을 하고 차차 결전을 한다. 제3함대의 주력은 진해만에 집결시키고, 일부는 다케시키(竹敷)에 배치하여 쓰시마(對馬)해협을 경비한다.³²⁾

7일 오후 3시 조선 남서안의 싱글수도에 도달했을 때, 헤이하치로(平八郎)는 각함에 예정된 행동으로 율기라고 명령했다. 제3전대는 정찰하기 위해 먼저 떠나 소청도(小靑島) 방향으로 가고, 제4전대와 육군 병사를 태운 선단은 인천 방향으로 향했다. 헤이하치로가 이끄는 제1, 2전대와 구축대는 여순구로 나아갔다.³³⁾

31) 최성환(2011), “러일전쟁기 일본해군의 玉島 八口浦防備隊 설치와 활용,” 『도서문화』, 제38집, pp. 220-226에서 재인용.

32) 外山三郎(1979), 『日清・日露・大東亞海戰史』(原書房: 東京), p. 156.

첫 번째 인용문은 러일전쟁의 작전지침에 해당하는데, 집결지가 목포 부근이며 근거지가 목포 부근에 있다고 명기되어 있다. 두 번째 인용문은 여순항 입구에 대한 폐쇄작전을 하기 직전의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 집결지가 상글수도임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옥도나 팔구포 주변의 지리적 조건은 함정의 집결지나 정박지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곳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여러 섬들로 둘러싸여 있는 옥도 주변 해역은 수십 척의 함정이 투묘하기에는 너무 좁고, 항해를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 많으며, 수심도 양호한 편이 아니다. 뿐만 아니라 출입할 수 있는 해역에 긴 타원형의 사퇴가 많다. 따라서 레이더가 없던 시대에 함정들의 야간항해가 어려운 곳이며, 함정에 대한 급수도 소형 지원함을 통한 중계보급으로만 가능하다. 따라서 팔구포에 있었다고 보고된 수십 척의 함정은 소형함들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³⁴⁾

게다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서술한 일본측 자료에서는 옥도 팔구포방비대를 직접 언급하고 있는 것이 없으며, 그 대신 ‘상글수도’와 ‘목포 부근’이라는 간접적인 표현만 볼 수 있다. 이러한 지리적 조건과 일본자료의 현황을 볼 때, 팔구포방비대가 통신 중계, 기상 관측, 급수 지원을 주요 활동으로 하는 해군기지였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³⁵⁾ 당대의 조악한 통신장비와 통신시스템을 고려하여 전신취급소

33) 眞木洋三(1985), 『東郷平八郎』下卷(文藝春秋 : 東京), p. 134.

34) 러일전쟁 발발시 참전한 일본의 전투함은 총 78척이었다. 그중에서 대형함정에 속하는 전함 6척의 각 배수톤수는 1.5-1.2만 톤, 장갑순양함 6척의 각 배수톤수는 9천 톤, 순양함 10척의 각 배수톤수는 4.9-2.7천 톤, 포함 7척의 각 배수톤수는 6백 톤, 구축함 19척의 각 배수톤수는 3백 톤, 수뢰정 30척의 각 배수톤수는 90톤이었다. 外山三郎(1979), 『日清・日露・大東亞海戰史』(原書房 : 東京), p. 199. 따라서 팔구포에 드나들 수 있는 함정 유형은 수뢰정과 구축함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각종 지원함선은 자료가 없어 알 수 없다.

35) 최성환(2011), “러일전쟁기 일본해군의 玉島 八口浦防備隊 설치와 활용,” 『도서문화』, 제38집, p. 230.

를 설치하고, 전투에 많은 영향을 주는 해상기상정보를 전장(戰場)과 최대한으로 가까운 곳에서 함정에게 알려주기 위해 기상관측소를 설치하며, 당대의 함정들이 석탄을 연료로 사용하여 발생하는 증기로 추진되기 때문에 급수시설을 만들 필요성이 있었던 것이다.

해방사의 시각에서 볼 때,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은 비록 우리 수군이 아닌 일본 해군에 의해 이용되었다 하더라도 서남해역의 외해 항로가 본격적으로 이용되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조선시대에는 수군진이 거의 대부분 육지와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가급적이면 육지와 가까운 수로를 이용하였다. 조선시대와 그리고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시기가 이러한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수 있지만, 돛과 노로 추진하는 조선의 전선(戰船)과 일본의 근대식 철제증기추진함정이라는 함선 유형의 차이도 간과할 수 없는 이유에 속할 수 있을 것 같다.

V. 광복 이후

한국 해군의 최초 명칭은 1945년 11월 11일에 창설된 해방병단(海防兵團)이었다. 광복을 맞이한 지 불과 만 3개월 만에 그리고 정부가 수립되기 2년 7개월 이전에 ‘충무공의 후예’임을 자처하면서 삼군 중 가장 먼저 창설된 해군은 1946년 6월 15일에 조선해안경비대(朝鮮海岸警備隊)로 명칭이 바뀌었으며, 그리고 1945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되자 해군(海軍)으로 명칭이 바뀌었다.

목포기지는 1946년 8월 18일 창설되었다. 이는 목포기지가 인천기지(46. 4/15)에 이어 두 번째로 창설되었으며, 목호(46. 8/22), 군산(47.

1/6), 부산(47. 9/24)보다 먼저 창설되었음을 뜻한다. 1947년 6월 21일에 창설된 제주수영은 목포기지의 관할부대였다. 정식 해군으로 바뀐 1948년 8월 15일에는 6개의 기지(인천·군산·목포·부산·포항·목호)와 1개의 특설기지(진해)로 해군의 지방기지가 바뀌었는데, 목포기지는 그대로 유지되었다.³⁶⁾ 6·25전쟁 이전까지 해군은 연안 경비, 항내 초계, 불법조업과 밀수선 단속, 해난구조활동, 군정청 해사과(海事課)의 해사업무, 선원행정, 선박검사권, 해양경찰의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정규 해군의 해상경비 임무는 미 7함대로부터 그 임무를 인계받은 1947년 8월 30일부터 시작되었다.³⁷⁾ 목포기지는 이러한 해군의 정규업무 외에도 목포철도사무소의 동맹파업(46. 10/31), 여순반란사건(48. 10/19), 무안과 압해도 무장폭도 출현(49. 3/4과 4/7), 목포형무소 죄수 400명 탈옥사건(49. 9/4) 등의 진압을 지원하기도 했다.³⁸⁾

북한군의 남침으로 6·25전쟁이 발발한 후 북한군의 남진 속도가 빨라지자, 1950년 7월 20일에 인천경비부와 군산기지가 목포경비부에 통합되었다(해본작명갑제67호). 또한 LST 단양함과 울산함은 목포에 있는 정부미 8만 가마니를 부산으로 수송하였다. 7월 23일에는 정부요인과 피난민을 승선시켰으며, 다음날인 7월 24일에는 목포경비부가 철수하였다. 목포경비부는 7월 26일부터 LST 단양함 함상에서 해상이동기지로 운영되었으며, 대흑산도와 어청도를 근거지로 삼고 함정에 대한 보급 임무를 수행하였다(해본작명갑제67호).³⁹⁾ 이것은 조선 초기에 목포만호진이 선상수어(船上守禦)의 형태로 유지된 것과 유사하였다.

인천상륙작전이 감행된(1950. 9/15) 지 보름 뒤인 1950년 10월 1일, 영암 월출산에 주둔 중이던 3천명의 공산군 게릴라부대가 목포 주변에

36) 해軍本部(1954), 『大韓民國海軍史』, 第1輯 : 行政編, pp. 36-37.

37) 김주식(2008), “해군의 창설과 발전,” 『軍史』, 제68호, p. 214.

38) 해軍本部(1952), 『海軍木浦警備府沿革史 1946. 8. 30 - 1952. 9. 19』, pp. 7, 19, 28.

39) 해軍本部(1954), 『大韓民國海軍史』, 第1輯 : 作戰編, pp. 77-80

출몰하여 살인, 방화, 약탈, 파괴 활동을 하자 당시 여수에 출동 중이던 진해방위대 제1대대의 1개중대(白南豹 소령)가 FS 제천정(병력), 무등산정(보급), 53호정과 63호정(탄환과 병기), 703함과 301정 및 504정(호송)의 지원을 받아 목포상륙작전을 감행하였다. 1540시에 703함이 목포 입구 남방 249고지에 있던 적 포대 2개소를 파괴하였다. 1530시에는 504정, 301정, 제천정, 53호정, 63호정이 진도수도를 통과하던 중 적으로부터 사격을 받았다. 그 외중에 504정이 기뢰 3개의 접촉과 폭발로 피해를 입었지만, 승조원은 전원 703함에 의해 구조되었다. 이 사건 때문에 수송선단은 시하도 부근에 정박하여 대기하였고, 그동안 63호정과 무등산정은 소해작업을 하였다. 10월 5일까지 8개의 기뢰를 발견하여 처리했으며, 1개월 동안 총 28개의 기뢰를 발견하였다. 소해 후 703함은 2개 분대를 달리도에 상륙시켜 목포만까지 적군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였다. 10월 2일 1500시까지 함포로 적을 탐색수색했으며, 1550시에 해군의 옹호사격 하에 해병대가 목포에 상륙하였고, 상륙 2시간 50분 후인 1700시에 목포를 완전히 탈환하였다.⁴⁰⁾

이후 목포경비부는 후방지원기지 역할을 수행해 왔다. 『해군작전경과보고서』에 따르면, 전쟁 기간은 물론 전쟁 이후에도 진해에서 서해로 출동하는 함정과 서해에서 출동을 마치고 진해로 돌아가는 함정은 거의 대부분 9-15시간 동안 목포경비부에 입항하여 청수와 유류를 수급하고, 필요한 수리와 정비를 하였다. 정전 후 해군의 임무는 공산군의 재침 예방, 일본 어선의 평화선 침범 방지(1953-57)에서 적의 불법행동 봉쇄, 북방한계선의 경계감시, 간첩침투 방지와 색출, 작전동태의 정찰, 어로보호, 밀수방지, 각종 성분작전 훈련, 자유 우방국의 친선유대로 바뀌었는데(1959-65),⁴¹⁾ 목포경비부도 이러한 임무들을 수행하였다.

40) 같은 책, pp. 132-134, 139

41) 김주식(2008), “해군의 창설과 발전,” 『軍史』, 제68호, p. 224.

해군경비사령부는 1973년 7월부터 1974년 1월까지의 기간에 해역사령부로 바뀌었으며, 이에 따라 목포경비사령부는 목포해역사령부가 되었으며, 해역사령부는 1986년 2월 1일에 함대로 다시 바뀌었다. 이에 따라 목포해역사령부는 제3함대 산하의 목포방어사령부로 격하되었다. 또한 2007년 11월 15일에는 작전사가 진해에서 부산으로 그리고 3함대가 부산에서 목포로 이전하였다. 그리하여 오늘날 목포기지는 함대격인 해역사에서 함대의 예하부대인 방어사령부로 격하된지 20년이 지난 후에야 함대로 다시 격상되었다.

제3함대의 임무수행해역은 부산, 울산 등 경상도뿐만 아니라 광양, 여수, 목포, 제주 등 전라도와 제주도에 이르는 광범위한 해역으로 국내해군작전해역의 44%를 차지하고 있다.⁴²⁾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기지의 이전과 이동을 하게 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부산작전기지와 목포기지 그리고 앞으로 건설될 제주기지를 중심으로 남방해역에 대한 작전능력을 높여 해상교통로 보호 등 원양작전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해양분쟁 등 다양한 해상작전상황에 기민하게 대처하면서 동서해 전방해역에 대한 후방지원도 고려했다. 한미연합작전 수행능력이 제고되도록 양륙항만(적재·하역기능항만)으로 적합한 부산, 목포항의 활용을 염두에 두어 결정한 것이다.⁴³⁾

광복 이후 목포는 4개의 해군기지 중 두 번째로 창설되었고, 휘하에 제주 수영을 둘 정도로 중요한 곳으로 해군에 의해 간주되었다. 6·25 전쟁 기간에는 목포가 적의 수중에 들어갔을 때에도 함정을 이용한 해상이동기지로 운영하면서 경계와 보급지원의 임무를 수행했는데, 해군

42) “부산의 3함대 목포로 이전,” 조선일보 2007. 11. 14자 기사.

43) “해작사 진해 → 부산으로 이전 ... 국방중기계획 확정,” 한국경제 2007. 7. 19일자 기사.

에서 유일무이한 사례이다. 약 2개월 후에 상륙작전으로 목포를 탈환하여 목포경비부가 정상 가동되었으며, 그때부터 현재까지 남해와 서해를 왕래하는 대부분의 함정이 목포기지에 입항하여 군수품을 보급 받고 있다. 그러나 목포경비부가 목포해역사령부로 바뀌었다가(1973) 함대가 3함대 개념으로 해군조직이 변화할 때 함대가 아닌 목포해역사령부로 격하되었다(1986). 그리고 해작사가 진해에서 부산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제3함대가 부산에서 목포로 이전되었다(2007). 그렇기 때문에 목포는 20년 만에 함대사령부로 격상되었으며, 동시에 목포의 해양전략적 가치가 다시 더 증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VI. 결론

고대부터 고려시대까지 해방사의 시각에서 볼 때, 목포지역의 해양전략적 가치는 '장보고시대(828-841)'와 고려 말에 본격적으로 인식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자의 시기에는 장보고의 수군이 서남해역의 해적을 소탕하고 제해권을 장악하였으며, 후자의 시기에는 왜구의 침구에 대항하기 위해 여러 수군진을 설치하고 수군장수를 상주시켰다. 그러나 해방사의 입장에서 볼 때, 고려시대까지는 목포가 아닌 나주지역이 서남해역의 중심지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 초기에는 목포가 아닌 진도에 수군 진영이 설치되었으며, 건국 10년 후에 해로의 중앙 위치가 아니라는 이유로 수영을 옥구에서 목포 인근의 대굴포로 이전하였다. 그로부터 15년 뒤에는 수영이 강 중류에 위치하여 유사시 대응능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목포로 다시 이전되었다. 다시 56년 후인 1479년에는 전라도 수군이 우수영과 좌수영으로 나뉘었으며, 그 까닭에 전라도 수군은 우수영(해남)과 좌수영(순천)의 2개

주진체제로 지속되었다.

전라도 수군의 진영과 보유 전선의 수와 비율은 조선 초기에 증가하였다. 후기에는 초기에 비해 수가 많이 증가했지만, 비율의 증가는 많지 않았다. 서남해역은 초기에 수군 진영과 보유 전선의 수와 비율이 계속 증가했지만, 후기에 이르러서는 수적인 변동이 거의 없었으나 비율이 많이 감소하였다. 목포진의 경우는 보유 전선의 수와 비율이 계속 감소하였다. 조선시대 전체를 보면, 전라도의 수군 전력은 증가했으나, 서남해역과 목포진의 전력은 감소하였고, 해양전략적 가치도 같은 궤적을 보이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 기간에는 일본인들이 서남해역을 중시하였다. 왜냐하면 조선 침략과 만주 침략을 위해서는 전투함정과 수송함선들이 반드시 이 해역을 통과해야 했기 때문이다. 일본 해군은 서남해역의 가운데 있는 옥도에 기지(팔구포방비대)를 건설하여 전신소, 기상관측소, 급수시설을 구비해 놓았다. 그러나 이 기지는 후방지원기지였을 뿐, 전투함정들의 정박지는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전투함정들은 서남해역의 외해를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때 집결지나 근거지로 삼았다. 이것은 서남해역 외해의 해양전략적 가치가 개항기에 이르러서야 그것도 일본인에 의해 중시되었음을 의미한다.

광복 이후에는 목포에 두 번째 해군기지가 창설되었고, 목포가 적의 수중에 떨어졌을 때 함정을 이용한 해상이동사령부로 운영되기도 했다. 목포는 해군에게 그만큼 중요한 곳이었으며, 이는 현재까지 남해와 서해를 오가는 대부분의 함정들이 목포에 입항하여 군수지원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도 입증된다. 목포 기지는 한 때 해역사령부에서 함대사령부의 예하부대로 격하되기도 했지만, 근래에 다시 함대사령부로 격상되어 해군작전해역의 44%를 담당하고 있다. 이와 같이 볼 때, 목포의 해양전략적 가치는 현대에 이르러 가장 잘 인식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노선이나 범선 혹은 노와 돛을 혼용하는 선박은 외해 항로가 아닌 가급적 육지와 가까운 연안항로를 이용하였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의 함대가 출동할 때 이용했던 항로도 연안항로였다. 서남해역도 이와 다르지 않았다. 왜구의 침구활동이 활발했을 때에도 대부분 해상에서 적을 수색하여 해상에서 선제공격으로 격퇴하지 않고 해안에 상륙한 왜구를 격퇴하려 했다. 왜구의 수색과 해상격퇴를 위해 필수적이었던 외해에서의 활동을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선시대의 해방은 소극적이고 수비적인 성격을 띠 수밖에 없었다. 비록 그 역할의 비중이 증가하고 감소하는 시기가 있었다고 해도, 목포지역은 해방사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곳이 되었으며, 목포진이 폐진되지 않고 조선 말기까지 계속 유지된 것도 그 때문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근대식 증기추진함정들은 서남해역의 외해를 이용하였으며, 서남해역의 외해가 갖는 해양전략적 가치는 비로소 이때에 이르러 빛을 볼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서남해의 외해에서 목포로 진입하는 수로와 해역은 오늘날에도 항해하기 어려운 곳이다. 조류가 바뀔 때에는 증기선도 조류에 역행하는 항해를 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조류에 밀리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또한 진입 수로가 좁고, 암초와 섬 및 수심이 낮은 곳이 많다. 목포에 입항했다가 외해로 나오는데 소요되는 시간도 적지 않고, 동시에 많은 함정이 정박할 수 있는 부두나 투모지도 찾기 어렵다. 또한 이 해역의 수로는 기뢰 부설에 매우 취약하다. 3함대를 다시 부산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주장의 이면에는 이러한 지리적 단점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으로는 서남해역 즉 목포 외해의 도서들을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고대부터 조선시

대까지 간간히 서남해역의 도서를 이용한 사례와 조선 말기와 대한제국기간 동안 일본이 옥도와 외해 항로를 이용한 사례들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서남해의 외해와 가까운 도서지방에 필요한 해방시설을 분산시켜 놓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 같다. 그리하면 함정의 항해 방해 요소가 적어지고, 항만 출입항 시간이 단축되고, 적의 주의를 분산시킬 수 있으며, 다도해는 함정이나 시설을 은닉하기에 적합한 환경이 될 수 있다. “해로와 연관된 목포의 역할이 곧 목포의 해양성이다”라는 주장⁴⁴⁾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해방사적 시각에서 볼 때, 목포지역의 해양전략적 가치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남해역과 연관시키고 또한 서남해역을 함께 활용할 때 가장 커지고 또한 효과적일 수 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44) 최성환(2011), “목포의 海港性과 개항장 형성과정의 특징,” 『한국민족문화』 39, p. 168.

〈참고문헌〉

- 『고려사』, 권 제113, 열전 제36, 정지.
- 『조선왕조실록』, 태종 8년, 12/24(정유).
- 『경국대전』
- 『속대전』
- 김주식 & 정진술 공저(2001), 『장보고시대』, 신서원.
- 목포문화원(2000), 『國譯 史蹟木浦』, 郷土文化史料 4.
- 알프레드 세이어 마한 지음, 김주식 옮김(1993), 『해양력이 역사에 미치는 영향 1』, 밀리터리 클래식5, 책세상.
- 外山三郎(1979), 『日清・日露・大東亞海戰史』(東京), 原書房.
- 윤용혁(2011), “고려 삼별초의 항전과 진도,” 『도서문화』, 제37집.
- 李榮文 & 高龍圭(2005), 『목포진 정밀지표조사 - 목포진 역사공원화 조성사업 지표조사』, 목포시·목포대박물관.
- 眞木洋三(1985), 『東郷平八郎』(東京), 文藝春秋.
- 崔在洙·李源哲(1997), 『開港期 이후의 木浦港과 木浦港의 비전』, 사단법인 목포백년회.
- 阪谷芳郎(1930), 『大日本海戰史談』(東京), 財團法人 三笠保存會.
- 海軍本部(1952), 『海軍木浦警備府沿革史 1946. 8. 30 - 1952. 9. 19』.
- 海軍本部(1954), 『大韓民國海軍史』, 第1輯 : 作戰編
- 海軍本部(1954), 『大韓民國海軍史』, 第1輯 : 行政編.
- 해군본부(2002), 『해군기본교리』, 기본교범(해교0).
- 해군본부(2006), 『명치 37, 38년 해진사』, 일본일반도서 06-1, 상·하권.
- 해군본부(2007), 『해군군사용어사전』, 해참교1.
- 姜鳳龍, “5-6세기 영산강유역 ‘甕棺古墳社會’의 해체,” <http://mnum.mkp.ac.kr/kangbr/옹관해체.htm>.
- 金州植(2004), “張保臯의 海上貿易基地 設置와 그 位置에 대한 研究,” 『

- 장보고연구논총』, 해군사관학교·해군해양연구소 장보고연구 III.
- 김주식(2008), “해군의 창설과 발전,” 『軍史』, 제68호.
 - 김주식·정진술(2000), “장보고와 이순신 양시대의 해양사적 연계인물 연구 - 왕건 해상세력의 성장과 나주해전을 중심으로,” 『海洋研究論叢』, 제25집.
 - 신성재(2011), “후삼국시대 나주지역의 해양전략적 가치,” 『도서문화』, 제38집.
 - 최성환(2011), “러일전쟁기 일본해군의 玉島 八口浦防備隊 설치와 활용,” 『도서문화』, 제38집.
 - “부산의 3함대 목포로 이전,” 조선일보 2007. 11. 14자 기사.
 - “해작사 진해 → 부산으로 이전 … 국방중기계획 확정,” 한국경제 2007. 7. 19일자 기사.

〈Abstract〉

Maritime Strategic Value of Mokpo
in view of the History of the Maritime Defense

KIM Joo-sik
senior research fellow, Korea Institute for Maritime Strategy

Though the Third Fleet of R.O.K. Navy relocated its headquarter from Busan to Mokpo on November 15th, 2007, an argument that the headquarter has to return to Busan has been raised. It stands on the basis of false sense of Mokpo area's maritime strategic value.

The maritime strategic value of Mokpo area was acknowledged in the Age of Chang Pogo and the Later Three Kingdoms of Korea. In the Joseon Dynasty, the naval and maritime strategic value of Mokpo area had been diminished though Usuyeong was setup in 80 years after the foundation of the Dynasty. During the late Joseon Dynasty and the Great Korean Empire, offshore of Mokpo was highly regarded by Japanese. After the Liberation of Korea, R.O.K. Naval Base was installed in Mokpo for the second time, and during the Korean War, we operated it as maritime mobile headquarter in ship when Mokpo area was occupied by enemy. All vessels between Jinhae and West Sea were received logistic support from Mokpo Naval Base. Currently, Third Fleet Headquarter in Mokpo controls 44% of naval operation areas though it went through the ups and downs after the war when the level of

Mokpo Naval Base in R.O.K. Navy was degraded as Naval Sector Defense Command, subordinate element of fleet.

During the era of row boat and sailing boat the passive and defensive strategy of maritime defense was operated, but the fact that Mokpo-Jin existed till the late Joseon Dynasty, shows that Mokpo has been in charge of certain part of maritime defense. The era of iron-clad vessels which were propelled by steam engine, the offshore of Mokpo was operated in earnest by Japanese as they recognized the maritime strategic value of it. Currently, the Third Fleet's Headquarter which controls whole part of the southern sea and some part of east & west sea is located in Mokpo. To make the best use of islands area of the southwest seas of Korea is the way to overcome the geographical weakness, increase maritime strategic value, and put the argument that the headquarter should be back to Busan to shame.

Keyword : Maritime Strategy, Third Fleet, Mokpo-jin, Mokpo Naval base, southwest seas of Korea

왕건의 나주 공략과 고하도

| 정진술 | 해군사관학교 해양사편찬위원회 자문위원
jg7100@hanmail.net

차 례

- I. 머리말
- II. 고하도의 해양지리적 환경과 유적
 - 1. 고하도의 해양지리적 환경
 - 2. 고하도의 해양방위 관련 유적
- III. 왕건의 나주 공략과 고하도
 - 1. 태봉과 후백제 간의 나주 공방전
 - 2. 왕건의 나주 공략에서 고하도의 역할
- IV. 맺음말

〈국문요약〉

목포시 유달동의 고하도는 임진왜란 때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이 100여일 동안 주둔하며 칠천량 해전의 패전으로 괴멸되었던 조선 수군을 재건하였던 곳이다. 현재 고하도에는 산성 유적이 있으며, 대체로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축성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달리 해석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이순신이 진영을 설치하여 머물렀던 한산도와 고금도에도 성을 쌓지 않았던 사실로 미루어 볼 때, 유독 고하도에만 성을 구축했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는 이순신이 짧은 주둔 기간과

적은 병력으로 성을 쌓을 여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필자는 고하도 산성을 고려시대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성으로 추정하였다. 태봉국의 해군대장군이었던 왕건이 909년에 수군을 거느리고 나주로 진격하면서, 먼저 진도군을 쳐서 함락시키고 이어서 고이도를 무혈 점령한 후, 덕진포 해전에서 후백제의 견훤 함대를 격파하고 승리함으로써 확실하게 나주 지역을 확보하였다. 왕건이 무혈 점령하였던 그 고이도를 필자는 고하도로 추정하였다.

주제어 : 고하도, 고이도, 왕건, 이순신, 덕진포 해전

I. 머리말

목포 유달산 아래의 高下島는 임진왜란 때 삼도수군통제사 이순신이 잠시 주둔하며 수군을 재건하였던 곳이다. 이순신은 고하도에 대해서 서북풍을 막음직하고 배를 감추기에 아주 적합한 곳이라고 하였다. 고하도에는 당시 이순신이 陣城으로 이용하고자 쌓았던 것으로 알려진 산성 유적이 있다. 필자는 예전에 이 고하도 산성을 답사하면서 이 산성이 과연 이순신이 쌓았던 성인가에 대하여 의문을 갖게 되었다. 이순신이 고하도에 주둔한 기간은 100여일¹⁾에 불과하며, 이 짧은 기간에 진성을 쌓는다는 것은 합리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것이다. 이순신

1) 일반적으로 108일로 알려져 왔으나 [李殷相譯(1989), 『完譯 李忠武公全書(下)』, p.120 ; 趙成都(1982), 『忠武公 李舜臣』, p.294 ; 崔碩男(1992), 『救國의 名將 李舜臣(下)』, p.408] , 106일 혹은 107일이라는 견해도 있다 [이진규(2013), 「충무공이 조선수군을 재건한 성지 고하도(高下島)」, p.15] . 이러한 혼란은 이순신이 고금도로 이진한 일자가 『宣祖實錄』에는 2월 17일 혹은 2월 16일, 『行錄』에는 2월 17일, 『書簡文』에는 2월 18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은 한산도에 오랫동안 주둔하면서도 그곳에 진성을 쌓은 적이 없다. 또한 고금도에 주둔하면서도 역시 그곳에 진성을 쌓은 적이 없다. 한산도나 고금도는 모두 작은 섬으로서 섬 전체가 수군 진성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순신은 그 섬들에 오랫동안 주둔하면서도 진성을 쌓지 않았던 것이다. 고하도는 한산도나 고금도보다 더욱 작은 섬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진성을 쌓을 이유는 더욱 적어진다. 이러한 문제의 제기를 화두로 삼아 고하도 산성에 대한 필자의 상상력을 발휘해보고자 하는 것이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이다.

먼저 고하도의 해양지리적 환경을 살펴본 후, 고하도의 유적들 특히 고하도 산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음으로 고하도 산성의 역사적 위치를 밝히기 위하여 태봉과 후백제 간의 나주 공방전에서 나타나는 皐夷島가 고하도와 서로 어떠한 연관이 있는가에 대해서 考究하고자 한다.

Ⅱ. 고하도의 해양지리적 환경과 유적

1. 고하도의 해양지리적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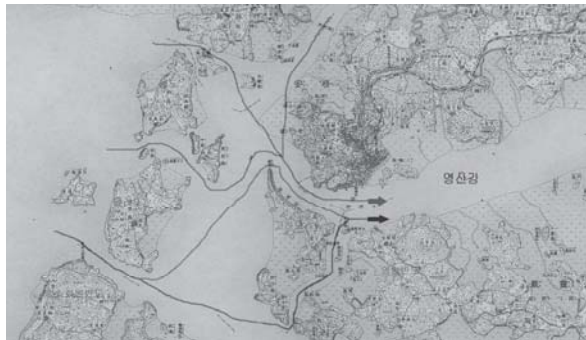
고하도는 영산강 하구와 바다가 맞닿은 곳에 위치하여 동서로 길게 뻗은 섬으로 행정구역상 목포시 유달동에 속한다. 고하도의 면적은 1.78km²이고, 해안선의 길이는 10.7km이며, 인구는 2013년 현재 323명인 아주 작은 섬이다. 섬의 서북쪽은 경사가 심하고, 동남쪽은 비교적 완만하며, 전체적으로 낮은 산지로 이루어져 있다. 해안은 곳곳에 소규모의 串과 灣이 발달하여 드나들이 심하며, 만의 가장자리에는 방조제를

쌓아 농경지와 염전이 들어섰다. 고하도에는 세 개의 선착장이 설치되어 있고, 취락은 동남쪽 평지에 집중 분포하고 있다.

고하도는 임야에 비해 논밭이 적다. 고하도에 대단위 전답이 조성된 것은 일제강점기부터 1960년대까지 수차례에 걸친 방조제 건설로 말미암은 것이다. 오늘날 고하도는 전체적으로 솔밭이 무성하지만, 20세기 초까지만 해도 땔감이 많이 부족했던 섬이다.

고하도는 동쪽으로 영암을 남쪽으로 해남을 마주보고 있고, 북쪽으로 목포가 위치하며, 서쪽 바다 위에 달리도와 놀도, 서북쪽에 압해도가 인접되어 있다. 섬의 동북쪽으로는 영산강이 열려 있다. 2004년에 고하도와 영암군 삼호면을 연결하는 매립지에 목포 新外港이 건설되면서 고하도는 육지와 연결되었다. 2012년에는 목포대교가 완공되면서 고하도는 목포시의 중심부와도 곧장 연결되었다.²⁾

지금은 목포시 삼향동 옥암리와 영암군 삼호면 나불리를 잇는 길이 2510m의 영산강 하구언덕이 준공되어 영산강이 막혀있지만, 예전에는 영산강 상류에서 바다로 나가거나 바다에서 영산강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하도를 거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림 1〉 범선시대에 서해 바다에서 영산강 하구로 진입하는 수로

2) 김경옥(2004), 『고하도』; 김학래(2013), 「고하도(高下島)의 인문 지리적 고찰」, pp.9-10.

범선시대에 서해에서 영산강 하구로 진입하기 위한 수로는 <그림 1>과 같이 5개의 노선이 있었다. 첫째는 압해도와 목포 사이의 수로를 통과하여 고하도 북쪽으로 진입하는 노선, 둘째는 압해도와 놀도 사이를 통과하여 고하도 북쪽으로 진입하는 노선, 셋째는 놀도와 달리도 사이를 통과하여 고하도 북쪽으로 진입하는 노선, 넷째는 달리도와 해남 화원반도 사이의 목포구를 통과하여 고하도 북쪽으로 진입하는 노선, 다섯째는 목포구로부터 영암반도와 고하도 사이를 통과하여 영산강 하구로 진입하는 노선이다. 이 모든 수로들은 반드시 고하도를 거쳐서 영산강 하구와 연결된다. 그러므로 고하도는 영산강과 서해 바다를 오가는 모든 배들이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영산강 하구의 요충지였다.

고하도 부근의 조류는 매우 빠른편이다. 달리도와 해남 화원반도 사이의 목포구에서 漲潮流의 유속은 최대 5.1노트이고, 落潮流는 최대 8노트에 이른다. 목포구를 통과한 창조류는 상기 다섯째 수로를 2-3.5노트의 유속으로 영산강 하구로 진입하며, 고하도 서북쪽을 돌아서 고하도 북안으로 진입하는 조류는 2-3노트로 목포항으로 들어간다. 영산강을 下流하는 낙조류는 고하도 북단에서 4-5노트의 유속으로 서해 바다로 진입한다.³⁾ 고하도 부근의 이러한 빠른 유속은 범선시대에 이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에게는 큰 장애물임과 동시에 항해를 돕는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였다. 그러므로 범선시대에 고하도 부근을 항해하는 선박은 반드시 조류를 이용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고하도는 그 지명이 高下島, 寶花島, 高和島, 悲霞島, 孤霞島, 갈섬 등으로 다양하게 전해오지만 구체적인 그 유래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고하도가 문헌자료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東國輿地勝覽』(1481)이다.

3) 大韓民國 水路局(1992), 『韓國沿岸水路誌』 제3권(서해안편), pp.69-71.

그 羅州牧 山川條에 “高下島는 둘레가 12리이다”라는 기록이 그것이다. 임진왜란 때는 이순신의 장계를 수록한 『선조실록』에 ‘寶花島’로 명기되었으며, 역시 이순신의 『난중일기』에도 ‘寶花島’로 표기되었다. 또 『이충무공전서』(1795)의 편찬자는 「高下島遺墟碑」의 고하도를 비석의 원문과는 달리 ‘高和島’로 표기하였다. 이 외에도 고하도는 현지인들 사이에 悲霞島(木浦詩社), 孤霞島(木浦府史) 혹은 갈섬 등으로 구전되어 왔다. 고하도의 지명이 이렇게 다르게 불리는 이유는 알 수 없으나, 조선 초기에 고하도는 ‘高下島’로 불렸던 것 같다.

고하도가 크게 주목을 받게 된 것은 임진왜란 때 통제사 이순신이 여기에 주둔하였던 사실로부터 비롯된다. 1597년 7월에 조선 수군이 칠천량 해전에서 패배하여 통제사 원균과 전라우수사 이억기 그리고 충청수사 최호 등이 전사하는 등 조선 수군이 괴멸되었다. 경상우수사 배설만이 10여척의 전선을 이끌고 탈출하여 조선 수군의 명맥이 보존되었다. 이순신이 다시 통제사에 임명되자, 그는 13척의 패잔전선을 거느리고 9월 16일에 명량해전에서 승리함으로써 정유재란의 불리한 전세를 반전시켰다. 이순신은 10월 29일에 목포 앞 고하도로 함대를 이동하였다. 이순신은 고하도가 서북풍을 막고 배를 감추기에 아주 적합한 곳으로 판단되어 여기에 집을 짓고 군사를 주둔하였다. 그리고 다음해 2월 17일에 고금도로 이진할 때까지 고하도에서 겨울을 보냈다. 그러므로 이 기간 동안에 고하도는 삼도수군통제영이 설치되어 수군 재건의 기반을 닦았던 곳이다. 고하도에서 이순신은 나무를 찍어 전선을 건조하는 한편으로 군사를 모집하였는데 무엇보다도 군량의 확보가 가장 큰 문제였다. 그리하여 특별히 민간에 명령하기를 “삼도 연해안의公私船을 막론하고 통행첩이 없이 다니는 배는 간첩으로 인정하여 통행할 수 없게 한다”라 선포하고, 배의 대소를 따라 그 통행첩의 값을 달리 받았는데, 큰 배는 3석, 중간 배는 2석, 작은 배는 1석으로 규정하였다.

그 결과 불과 열흘만에 군량 1만여 석을 확보할 수 있었다고 한다.⁴⁾ 이순신은 이처럼 해로통행첩을 발급하고 한편으로는 소금을 구워 군량을 확보함으로써 전란을 통하여 가장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며 수군 재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곳이 바로 고하도였다.

2. 고하도의 해양방위 관련 유적

고하도에는 이순신의 사적으로 1722년에 세워진 ‘高下島遺墟碑’가 있다. 통제사 吳重周가 발의하여 통제사 李鳳祥이 완성한 이 비는 南九萬(1629~1711)이 비문을 지었다. 현재 이 비문은 마모되어 원형이 많이 훼손되었으나 『이충무공전서』에 그 비문이 실려 있어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지장이 없다. 지금은 慕忠閣 안에 비석이 보존되어 있다.

고하도 유허비문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사실이 나타나 있다.

첫째는 이순신이 여기저기서 모은 군량을 고하도에 저장하고 별장을 두어 다스리게 하였는데, 그 후 1647년에⁵⁾ 진을 唐串(지금의 목포시 하당 일대로 추정)으로 옮겼다는 점이다. 둘째는 통제사 오중주(재직기간 : 1718년 4월-9월)가 군사와 백성들의 뜻을 모아 비석에 글을 새겨 이순신이 고하도에 처음 진을 개설했던 자리에 세우고자 했으나 겨우 돌을 다듬자마자 해직되어 이루지 못했으며, 그 후 통제사 이봉상이 1722년에 완성하였다는 점이다. 여기서 처음 진영을 설치하였던 곳에 비석을 세우고자 했다는 것은, 고하도 통제영의 본영 위치를 찾고자 할 때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또한 당시 이순신이 건립하였던 본영 건물은 기와집이 아닌 초가집이었다는 사실도⁶⁾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4) 柳成龍, 『懲毖錄』, 卷2.

5) 고하도유허비문에는 ‘近年’이라고 하였으나, 『大東地志』 務安縣條에 의하면, 고하도진이 唐串으로 移設된 것은 인조 25년(1647)이다.

고하도에는 이순신이 전선을 건조했던 造船場터가 전해오고 있다. 그 장소는 고하도의 남서쪽 '큰산' 밑 소두루지라 하며, 지금은 간척되어 이 곳에 큰 들이 형성되어 있다. 근세에도 간척지의 독을 막고 있는 곳에서 이순신 당시의 잔목이 거대한 古木으로 발굴되었다 한다.⁷⁾ 『난중일기』에 의하면, 이순신이 진도와 고하도 등에서 전선을 건조하였다⁸⁾ 했으므로, 당시 고하도에 조선장이 있었던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당시 고하도에 주둔 중이던 이순신은 함대 세력이 너무나 미약했으므로 전선의 건조에 심혈을 기울였는데, 모두 40척을 건조한 것으로 알려졌다.⁹⁾



〈그림 2〉 고하도 유적지 약도(최덕원, 전게서, p.21)

- 6) 『亂中日記』 정유년 11월 6일, "新家蓋草".
- 7) 崔德源(1975), 『高下島の遺蹟研究』, p.16.
- 8) 『亂中日記』, 정유년 12월 5일 및 12월 10일 기사.
- 9) 『宣祖實錄』, 31년(1598) 2월 22일(정축).

고하도에는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山城의 유적이 일부 남아 있다. 1975년에 고하도 산성을 답사한 최덕원은 다음과 같은 관찰 기록을 남겼다.

“고하도 유희비가 서 있는 堂山 뒤에 위치한 큰산(산 이름)과 뫼봉산 그리고 칼바위와 말바위를 이은 선상에 1km가량의 석성이 있다. 석성은 큰 바위와 연하여 있으며, 큰산과 말바위를 이은 북쪽은 비탈이 심한 정상 밑에 小石으로 구축하였고, 평평한 서남쪽과 동쪽은 大石으로 축조되어 큰 타원을 그리면서 큰산 말바위 성안골을 이어 큰산 밑으로 해서 뒷도랑으로 이어졌다. 바위에 구멍을 파고 성문을 만든 흔적이 역역하며, 동북쪽에 있는 성문의 위치는 지금 보아도 알 수 있게 남아있다. 남서쪽에는 높이 2m 폭 1m의 石城이 보존되어 있으며, 나머지 성곽의 흔적도 알아볼 수 있도록 남아있다. 또한 성은 큰 바위와 바위를 이어 천연의 석성으로 이룩된 곳이 많으며, 말바위와 같은 자연적인 要塞岩으로 이룩된 훌륭한 성지가 보존되어 있다. 남서쪽에 있는 석성을 관찰해 볼 때, 본격적인 축성이 아닌 잡부들의 속성작업으로 쌓아올린 戰時의 조잡한 성임을 알 수 있으며, 큰 숲에 가린 때 복된 석성이다.”¹⁰⁾

고하도 산성은 그 후 간척지의 방조제를 쌓고, 큰덕골의 저수지를 만들면서 성돌들을 헐어다 사용하였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성벽이 거의 소실되었다한다.¹¹⁾

고하도 산성은 통제사 이순신이 고하도에 주둔할 당시에 쌓았다고 하며, ‘고하도이충무공유적’이라는 명칭으로 1974년 9월 24일에 전라남

10) 崔德源(1975), 『高下島의 遺蹟研究』, pp.9-11.

11) 金敬燾(2004), 『고하도』, p.156.

최영섭(2007), 『이충무공 정국 서린 민족성지 고하도』, pp.414-415.

도 기념물 제10호로 지정되었다. 더욱이 고하도의 산성에 대해서 많은 저서들이 한결같이 이순신이 여기에 삼도수군통제영을 건설하면서 축성했던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¹²⁾ 심지어는 “『난중일기』에 진성의 축조 과정이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¹³⁾고 언급하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른 착오이다. 한편, 이와는 달리 이순신이 고하도에서 보낸 짧은 기간 동안에 전선을 건조하고 무기를 제작하며, 군량미를 모으고, 군사 훈련을 하느라 눈 코 뜰 새도 없이 바쁜 시기에 성을 쌓을 엄두를 낼 수 없었을 것이므로 후에 별장이 배치되면서 군량창고를 보호하기 위한 별장진성으로 쌓았을 것이라는 견해도 있다.¹⁴⁾

필자는 2000년에 해군사관학교 해양사편찬위원회 유적답사반의 일원으로 고하도 산성을 답사한 바 있으며, 당시에 오래된 성이라는 느낌을 받았으나 그 규모와 배치에 대해서는 깊이있게 관찰하지 못했다. 그렇지만 그 산성을 이순신이 주둔하면서 쌓았다는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았다.

첫째는 이순신이 진영을 설치하여 머물렀던 한산도와 고금도에도 성을 쌓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독 고하도에만 성을 구축했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산도나 고하도, 고금도는 작은 섬이므로 적이 섬의 포구에 주둔중인 아군 함선을 공격하기 위하여 상륙을 시도할 경우에 곧바로 그 움직임을 탐지하여 해상작전으로 대응할

12) 고하도 산성을 통제사 이순신이 축성했다고 언급한 문헌은 다음과 같다.

崔德源(1975), 『高下島의 遺蹟研究』, pp.3-11.

李海濬(1995), 「목포의 역사-개항 이전사-」, p.36.

김경옥(2004), 『고하도』, pp.154-156.

목포대학교 박물관(2007), 『고하도 유원지 조성 실시설계 지역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 p.30.

최영섭(2007), 『이충무공 정곡 서린 민족성지 고하도』, pp.414-417.

백상훈(2013), 「고하도(高下島) 산성(山城)」, pp.30-32.

13) 金京玉(1995), 「木浦市の 歷史遺蹟」, p.124.

14) 이진규, 「고하도 수군통제영에 대한 소고」〔백상훈(2013), 「고하도(高下島) 산성(山城)」, p.31에서 재인용〕.

수가 있는 곳이다. 이 점은 이순신이 육지나 큰 섬들의 포구를 삼도 수군의 주둔지로 설정하지 않고 이들 작은 섬들에 주둔지를 설치했던 이유이기도 하다.

둘째는 짧은 주둔 기간과 적은 병력으로 성을 쌓을 여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이순신은 고하도에 불과 100여일 동안 머물렀다. 당시에 이순신은 전선과 병력은 물론이거니와 군량미도 부족하였다. 이러한 실정에서 많은 시간과 인력 그리고 군량이 소요되는 성 쌓기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순신이 고하도에 성을 쌓았다면 『난중일기』에도 기록을 남겼을 법한데, 우리는 거기에서 전혀 흔적을 찾아볼 수 없다. 후에 군량창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별장진성으로 쌓았을 것이라는 견해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조선 후기에 수군 별장진으로 설치되었던 長木浦鎭, 南村浦堡, 豐德浦堡, 新門堡, 晴川堡, 蟾津堡 등에 모두 성이 없다는 사실을 볼 때, 유독 고하도 별장진에만 성을 쌓았던 이유를 찾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여기서 필자는 고하도 산성이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쌓았던 성이 아니라 사실은 고려 이전에 쌓여진 성이 아닌가라는 상상을 해본다. 태봉국의 해군대장군이었던 왕건이 909년에 나주로 진격하면서 먼저 珍島郡을 쳐서 함락시키고, 이어서 皐夷島에 이르렀을 때 성안 사람들이 왕건 함대의 진용이 엄숙하고 씩씩한 것을 보고 싸우기도 전에 항복하였다.¹⁵⁾ 이 후 왕건과 견훤 간에 덕진포 해전이 벌어졌고¹⁶⁾ 왕건이 승리함으로써 태봉은 확실하게 나주를 장악한 바 있었다. 필자는 당시 왕건에게 항복했던 고이도를 새로운 가설로서 고하도에 비정하고자 한다.¹⁷⁾

15) 『高麗史』, 卷1, 世家, 太祖1, “梁開平三年...往擊光州珍島郡拔之 進次皐夷島 城中人望見軍容嚴整 不戰而降”.

16) 왕건이 진도와 고이도를 공취한 후 연이어 덕진포 해전이 발생했을 것이라는 이러한 견해와는 달리, 진도와 고이도 점령과 덕진포 해전은 연이어 발생한 사건이 아니라는 견해도 있다(신성재(2006), 『弓裔政權의 軍事政策과 後三國戰爭의 전개』, pp.89-93).

Ⅲ. 왕건의 나주 공략과 고하도

1. 태봉과 후백제 간의 나주 공방전

왕건이 고려를 건국한 918년 이전까지 태봉과 후백제의 군사적 대결은 주로 서남해에서 나주일대를 장악하기 위한 공방전으로 전개되었으며, 태봉의 나주 공방전은 궁예의 부하 장수인 왕건에 의해서 주로 수행되었다. 왕건과 후백제 견훤 간에 벌어진 나주 공방전은 903년 3월에 왕건의 수군이 光州의 錦城郡과 10여 개의 군현을 공취하고 금성을 나주로 개명하면서부터 시작되어, 고려가 이 지역을 확실히 장악한 918년까지 15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진행되었다.¹⁸⁾

태봉이 후백제의 배후에 위치한 나주의 공략에 나선 것은 영토확장의 목적 외에도 예성항 일대 해상무역세력의 중요한 무역 상대지로서 나주 지역과의 무역활동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¹⁹⁾ 태봉이 실제로 군사행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후백제에 점령되어 있던 나주 지방의 해상세력가가 궁예에게 의탁해온 사실을 들 수 있다.²⁰⁾ 또 다른 중요한 계기로는 901년 8월에 견훤이 금성 남쪽의 연변 부락을 약탈하자 그로 말미암아 나주 지방 해상세력들이 예성항 일대 해상세력에게 특히 그 주도세력이었던 왕건에게 지원을 요청했으리라는 추론²¹⁾을 들 수 있다. 태봉은 약 1년여의

17) 지금까지 필자는 학계의 일반적 인식처럼 고이도를 신안군 압해면 古耳島로 비정해 왔다 [정진술(2009), 『한국해양사(고대편)』, p.316] .

18) 『高麗史』, 卷1, 世家, 太祖1.

19) 정진술(2009), 『한국해양사(고대편)』, pp.307-311.

20) 『高麗史』, 卷57, 地理志2, 羅州牧, “甄萱稱後百濟王 盡有其地 未幾郡人附于後高麗王 弓裔”.

21) 日野開三郎(1961), 「羅末三國の鼎立と對大陸海上交通貿易(4)」, p.106.

申虎澈(1996), 『後百濟 甄萱政權研究』, p.129.

해상원정 준비기간을 거친 다음 903년에 나주 지역을 공격하여 이를 점령하였다. 이에 대해 수군세력이 약한 후백제측은 즉각적인 해상 대응보다는 자국의 수군력을 키우는데 심혈을 기울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하여 그로부터 6년 후인 909년²²⁾에 견훤은 드디어 왕건 함대를 상대로 영암 덕진포 해상에서 전투를 벌이게 되었다.

909년에 海軍大將軍으로 승진한 왕건은 전함들에 군사 2500명을 태우고 貞州(경기도 풍덕)를 출발하여 나주 지역으로 진격하였다. 그는 먼저 진도군을 공략한 다음 梟夷島(목포시 유달동 고하도로 추정)를 점령하고 여기에 함대를 주둔시켰다. 왕건이 영산강 하구에 위치한 고이도(고하도)로 진격하기 전에 먼저 진도군을 공략한 것은 배후의 적대적인 세력을 제거하여 함대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 이것은 나주군도 일대에 있던 후백제의 해상세력을 제압하여 함대의 배후를 안전하게 함으로써 영산강 하구로 진입하였을 때 후백제의 해상세력으로부터 앞뒤에서 포위를 당하지 않으려는 지극히 당연한 전략적 식견의 소산이었다.²³⁾ 한편, 이에 앞서 왕건 함대가 그 해에 이미 塩海縣(무안군 해제면 임수리)에 진격하여 후백제가 吳越國에 보내는 사신선을 나포한 바 있었으므로 견훤도 함대 간의 전투에 대비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리하여 왕건 함대와 견훤 함대 간에 나주일대의 장악을 위한 해상 결전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왕건 함대는 고이도(고하도)를 출발하여 영산강을 거슬러 올라갔다. 이 때 견훤 함대는 목포²⁴⁾에서부터 덕진포까지 함선들을 전개시켰으며,

22) 덕진포 해전의 시기가 『고려사』에는 909년으로, 『삼국사기』에는 912년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다(신성재(2006), 『弓裔政權의 軍事政策과 後三國戰爭의 전개』, pp.89-93). 여기서는 『고려사』를 기준으로 언급하고자 한다.

23) 왕건이 能昌을 제압했을 때도 그는 상대가 아군의 앞뒤를 막는 것을 매우 두려워한 바 있다(『高麗史』, 卷1, 太祖世家, 開平3年, “邊前絶後 勝負未可知”).

24) 목포의 위치는 두 가지 장소로 전해오는데, 영산포 부근의 ‘나주 목포’(『東國輿地勝覽』 권35 전라도 나주목조)와 현재의 목포인 ‘무안 목포’(『世宗實錄地理志』 전라도 나

그 세력은 왕건 함대를 능가하였다. 양 함대는 곧 조우하여 접전을 시작하였으며, 결과는 왕건 함대의 용감한 돌격과 火攻으로 태봉군이 크게 승리하였다. 견훤 함대의 군사들 가운데 태반이 물에 빠져 죽었으며, 태봉의 수군들은 후백제 수군의 머리를 5백여 급이나 베었다. 견훤은 작은 배를 이용하여 탈출하였다. 이 해전에서 견훤의 정예부대에 소속된 유능한 병사들과 함선들이 궤멸되었다. 왕건 함대는 영산강 중류 남해만에 있는 반남현 포구로 전진하여 이곳에 주둔하면서 견훤세력의 준동을 감시하는 차후작전에 들어갔는데, 그 작전 과정에서 壓海縣(신안군 압해도)의 해적 두령 能昌을 중심으로 한 이 지역 잔여 해상세력의 저항을 제압하였다.²⁵⁾

덕진포 해전의 승리로 태봉은 후백제 연해안의 해상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따라서 후백제의 해상활동은 932년에 견훤의 수군 장수인 相貴나 尙哀 등의 예성강 지역 공격이 있기까지²⁶⁾ 무려 23년 동안 침묵을 지킬 수밖에 없었으며, 그 기간 동안 견훤은 해전을 포기하고 육전에 치중하게 되었다. 910년에 견훤이 보기병 3000명으로 나주성을 공격하였으나 태봉의 수군에 의해 격퇴된 사실²⁷⁾은 덕진포 해전의 패전으로 인한 정예 장병의 상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는가 싶다.

후백제는 덕진포 해전의 패배로 말미암아 이후 오랫동안 서남해의 경영정책을 포기하고, 그 대신 경상도로 진출하여 신라권역에서 세력확대를 도모하는 정책으로 전환하였다.²⁸⁾ 왕건의 경우에 덕진포 해전의

주목 무안현조이다. 이에 대해서는 李海濬(1995), 「목포의 역사-개항 이전사」, pp.14-21이 참고 된다.

목포의 위치가 이와 같이 상이하므로 덕진포 해전 당시 목포의 위치에 대해서도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르며, 각각의 견해에 대해서는 愼成宰(2007), 「태봉과 후백제의 덕진포해전」, pp.73-76에 잘 정리되어 있다.

25) 『高麗史』, 卷1, 世家, 太祖1, 開平 3년(909).

26) 『高麗史』, 卷2, 太祖世家, 15年.

27) 『三國史記』, 新羅本紀, 孝恭王 14年.

28) 柳永哲(1997), 『高麗와 後百濟의 爭霸過程研究』, p.26.

승리는 그에게 장기간 동안 나주 주둔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예의 칼날을 피할 수 있었고, 또 나주지방을 자신의 든든한 세력기반으로 만듦으로써 결국 이곳을 기반으로 고려를 건국하기에 이르렀다.

나주 공방전이나 덕진포 해전을 돌이켜 볼 때, 왕건이라는 인물이 그 한복판에 우뚝 서 있음을 보게 된다. 왕건이 이처럼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부하에 대한 넓은 포용력과 사기를 유지하는 지휘통솔력, 함대 운용술, 그리고 병법에 정통한 해전술의 구사능력 등과 같은 군사전략가로서의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왕건이 해상결전을 통하여 후백제의 함선과 정예군사를 격멸함으로써 후백제의 연해에 대한 해상권을 장악하였던 것은 그가 비범한 수군장이었음을 보여준다.

2. 왕건의 나주 공략에서 고하도의 역할

영산강은 호남평야라는 곡창지대를 아우르는 수로를 형성한다. 고려 때 전국에 13漕倉을 두었는데, 전라도에만 무려 6개가 있었고, 그 중에서 1~2개가 영산강변에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곧 나주 해룡창과 영암 장흥창이다.²⁹⁾ 이 지방이 차지하는 경제적 비중이 얼마나 높은가를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영산강은 호남 곡창지대의 핵심적인 수운로라 할 것이다.

영산강은 목포로부터 강을 거슬러 올라가 73km되는 영산포 상류 5km 지점까지 바닷물이 드나든다. 그래서 예로부터 밀물과 썰물에 맞추어 배가 운행되었다. 1920년대에도 영산강의 가항수로는 200섬 이상을 적

29) 장흥창의 위치는 영암군 군서면 해창리(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2009), 『고려 뱃길로 세금을 걷다』, p.57) 또는 장흥군 해창리(정진술(2009), 『한국해양사(고대편)』, p.357)라는 두 가지 견해가 있다.

재한 대선이 목포로부터 상류 31km 지점인 몽탄나루까지 운항할 수 있었고, 100섬 이상을 적재한 소형 기선은 영산포까지 운항할 수 있었다.³⁰⁾

영산강의 이러한 수로경제적 환경은 해양방위 측면에서도 중요시되었다. 그리하여 조선 초기에는 영산강 상류 무안현 大堀浦(지금의 함평군 학교면 곡창리 대곡마을 근처로 추정)에 水軍處置使營이 설치되어, 대선 8척 중선 16척과 수군 1895명, 뱃사공 21명이 배치되었다.³¹⁾

영산강 하구에 위치한 고하도는 영산강 상류에서 서해 바다로 나가거나, 서해 바다에서 영산강 상류로 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유해야만 하는 길목에 위치한 요충지이다. 그러므로 고하도에는 고대로부터 영산강 수로의 통행을 감시하거나 통제하기 위한 군사력이 배치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달리 말하면, 영산강 수로를 장악하기 위해서는 고하도의 점령이 매우 중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처음에 태봉의 장수인 왕건이 수군을 거느리고 나주 지역을 점령한 바 있으나, 그 후 몇 년의 세월이 지나자 이 지역은 태봉의 수도인 철원과 멀리 떨어져 있어 통제가 어려운 관계로, 진도군과 고이도 등 일부가 태봉에 적대적인 세력이 되었다. 마침내 909년에 왕건은 다시 수군을 거느리고 먼저 진도군을 공격하여 이를 점령한 후 이어서 고이도를 무혈 점령하였다. 당시 고이도 ‘성안 사람(城中人)’들은 왕건의 군대 진용이 엄정한 것을 바라보고 싸우지 않고 항복하였다. 이러한 사실로 보아 당시 고이도에는 성이 있었던 것이 확실하며, 필자는 왕건이 무혈 점령했던 고이도성은 바로 목포 고하도 산성이었을 것으로 추정하고자 한다. 고하도와 같은 작은 섬에 오늘날까지도 ‘성안 잔등’ ‘성안꼴’이라는 지명이 전해오는 것도³²⁾ 그 유래가 예사롭지만은 않다.

30) 金京洙(1995), 『영산강 3백50리-물길따라 뱃길따라』, pp.310-315.

31) 『世宗實錄』, 卷151, 地理志, 全羅道條.

만일 왕건이 점령한 고이도를 지금의 신안군 압해면 古耳島로 비정한다면,³³⁾ 왕건 함대의 행동을 설명하는데 적절하지 못한 점이 있다. 즉, 한강 하구를 출발하여 서해안을 따라 남하한 왕건 함대가 압해면 고이도를 지나쳐서 남쪽으로 멀리 진도군을 점령한 후에 다시 왔던 길로 북상하여 고이도를 점령하고 다시 남하하여 영산강 하구로 진입했다는 것이므로 이는 불합리한 군사 운용으로 보인다. 왕건이 영산강으로 진입하기 전에 배후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진도군과 고이도를 점령하고자 했다면, 먼저 압해면 고이도를 점령한 후에 진도군으로 진격하는 것이 순리적인 작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왕건은 압해면 고이도를 놓아두고, 즉 배후에 적을 두고 멀리 진도군을 먼저 공격했다는 것이므로 이는 병법에서 금기시하는 군사작전이라 하겠다. 그러므로 고이도를 고하도에 비정해야만 왕건의 군사 작전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왕건은 고이도(고하도)를 점령함으로써 영산강 상류의 영암 덕진포에 주둔 중이던 견훤의 수군이 압해도의 能昌을 위시한 신안군 내 여러 섬들의 해상세력과 수로를 통하여 연계하는 것을 차단할 수 있게 되었다. 고이도(고하도)는 영산강 수로를 통제하는데 전략적으로 가장 유리한 장소로서, 이 곳을 점령한 왕건이 여기에서 견훤의 수군 활동을 효과적으로 감시함으로써 유리한 위치에서 차후 작전을 전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32) 김경옥(2004), 『고하도』, p.54.

33) 왕건이 점령한 阜夷島를 압해면 古耳島로 비정한 문헌들은 다음과 같다.

文秀鎭(1987), 「高麗建國期の 羅州勢力」, p.16.

裴鍾茂(1987), 「新安地方의 歷史遺蹟」, p.160.

姜鳳龍(2002), 「押海島의 변영과 쇠퇴-고대·고려시기의 압해도-」, p.34.

신성재(2006), 『弓裔政權의 軍事政策과 後三國戰爭의 전개』, p.85.

정진술(2009), 『한국해양사(고대편)』, p.316.

IV. 맺음말

목포시 유달동의 高下島 산성을 임진왜란 때 이순신이 축성했을 것으로 보는 견해들이 있다. 또 임진왜란 후에 고하도 별장이 배치되면서 군량창고를 보호하기 위한 별장진성으로 쌓았다는 견해도 있다. 이에 대해서 필자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달리 해석하고자 하였다.

첫째는 이순신이 진영을 설치하여 머물렀던 한산도와 고금도에도 성을 쌓지 않았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유독 고하도에만 성을 구축했던 이유를 발견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산도나 고하도, 고금도는 작은 섬이므로 적이 아군 함선을 공격하기 위하여 섬에 상륙을 시도할 경우에 곧바로 그 움직임을 탐지하여 해상작전으로 대응할 수가 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둘째는 짧은 주둔 기간과 적은 병력으로 성을 쌓을 여력이 부족하였다는 점이다. 이순신은 고하도에 불과 100여일 동안 머물렀다. 당시 이순신은 전선과 병력은 물론이거니와 군량미도 부족하였기 때문에 성 쌓기에 눈을 돌릴 여유가 없었을 것으로 보인다. 후에 군량창고를 보호하기 위하여 별장진성으로 쌓았을 것이라는 견해도, 조선 후기에 수군 별장진으로 설치되었던 長木浦鎮, 南村浦堡 豊德浦堡 등에 모두 성이 없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아 가능성이 없다고 보여진다.

필자는 고하도 산성이 고려 태조 때 이전부터 존재하였던 성이 아닐까 추정한다. 태봉국의 해군대장군이었던 왕건이 909년에 나주로 진격하면서 먼저 珍島郡을 쳐서 함락시키고, 이어서 皐夷島를 무혈 점령하였는데, 당시 고이도 성안 사람들이 왕건 함대의 위용을 보고 싸우기도 전에 항복하였다. 이 후 왕건은 덕진포 해전에서 견훤 함대를 격파하고 승리함으로써 확실하게 나주를 장악하였다. 왕건이 점령하였던 그

고이도를 필자는 고힌도로 추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고이도가 문헌에 처음 나타나는 것은 『입당구법순례행기』의 기사이다. 일본의 입당구법승 엔닌(圓仁)이 신라선을 타고 귀국하면서, 847년 9월에 산동반도 적산포를 출발하여 무주 서남 지역의 ‘高移島’에 정박한 바가 있었다. 高移島의 현재 위치에 대해서는 일찍이 라이샤워(E. O. Reischauer)가 신안군 荷衣島로 비정한 이래³⁴⁾ 小野勝年도 하의도로 보았으며,³⁵⁾ 우리나라의 번역서들도 이 하의도 설을 따르고 있다.³⁶⁾ 그러나 하의도는 이 부근의 항로에서 벗어나 있고 촘촘한 섬 사이에 위치하여 있기 때문에 그 범선이 야간항해를 하여 정박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곳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그 고이도를 신안군 도초면 牛耳島로 비정한다. 그 이유는 엔닌의 귀국선이 고이도에서 흑산도를 100리 남짓 서북쪽으로 보았으며 또한 밤 10시까지 범선이 안전한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해로 상에 위치해 있는 탁 트여진 포구를 가진 섬이어야 했기 때문이다. 그 부근에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섬은 우이도밖에 없는 것으로 보인다. 우이도는 흑산군도와 나주군도 사이의 수로인 每勿水道 바로 옆에 위치한 섬으로서 범선이 출입하기에 유리한 탁 트여진 포구를 가진 섬이기도 하다.³⁷⁾

우리나라 옛 지리지의 전라도 산천조에는 고이도가 두 개 나타난다. 하나는 강진군 산천조에 나오는 ‘古尔島’이고, 다른 하나는 영광군 산천조에 나오는 ‘故耳島’이다.³⁸⁾ 여기서 강진군 古尔島는 완도군 고금도의

34) Edwin O. Reischauer(1995), *ENNIN'S DIARY-The Record of a Pilgrimage to China in Search of the Law*, p.400.

35) 小野勝年 校註(1992), 『入唐求法巡禮行記校註』, p.516.

36) 이와는 달리 엔닌 일기의 高移島를 신안군 압해면 古耳島에 비정하는 견해도 있으나 [姜鳳龍(2002), 「押海島의 변명과 쇠퇴-고대·고려시기의 압해도-」, p.34], 일기의 기술 내용과는 부합되지 않는다.

37) 정진술(2009-a), 『한국의 고대 해상교통로』, pp.277-278.

38) 『世宗實錄』, 卷151, 地理志, 全羅道條. ; 『東國輿地勝覽』, 靈光郡, 康津縣.

옛 명칭이다.³⁹⁾ 나주목 산천조에 오늘날 신안군 팔금도가 八尓島, 비금도가 飛尓島로 표기된 것으로서 그 점이 분명히 드러난다. 영광군 故耳島는 지금의 압해면 古耳島이며,⁴⁰⁾ ‘古里島’로도 일컬어졌다.⁴¹⁾ 그러므로 그 두 개의 고이도는 한자 명칭만으로 볼 때 왕건이 점령한 皐夷島와는 다르다.⁴²⁾

원래 ‘고이’는 사투리로 고양이를 말한다. 고려 때 고양이가 부곡(高伊部曲) 출신의 사람이 벼슬을 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참설이 있자 고양이가 부곡 출신으로 원나라에 가서 공을 세운 柳庇로 말미암아 충렬왕 11년(1285)에 ‘고이 부곡’을 ‘高興’으로 고쳐 縣으로 승격시킨 바가 있다.⁴³⁾ 즉, ‘고이’의 뜻이 좋지 않으므로 ‘고흥’으로 고쳤다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역측해보면, 혹시 태조 당시까지 ‘皐夷島’로 불렸던 명칭이 뜻이 좋지 않아서 후대에 ‘高下島’로 고쳐졌을지 모르는 일이다.

만일 고하도가 왕건이 점령하였던 고이도로 인정된다면, 고하도는 왕건과 이순신이라는 우리민족의 위대한 두 수군 장수를 공유하는 유적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제언하건대, 고하도에 이순신의 유적은 이미 드러나 있지만 왕건과 관련한 유적은 아직 분명하지가 않다. 그러므로 발굴을 통해서 이를 밝혀보는 것도 민족문화의 顯彰과 향토문화의 暢達 측면에서 시도해 볼만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39) 이순신도 고금도를 古尓島로 호칭한 바 있다(『李忠武公全集』 권3, 狀啓2, 請設屯田狀, “康津境古尓島”).
 40) 『輿地圖書』에 ‘古耳島’(영광)로 되어 있다.
 41) 『增補文獻備考』, 卷33, 輿地考, 海防.
 42) 金正浩의 『大東地志』에는 ‘高下島’(나주)와 ‘皐夷島’(영광)만 표기되어 있으나, 『大東輿地圖』에는 ‘高下島’, ‘古耳島’, ‘皐夷島’ 세 개 모두 표기되어 있어 혼란스럽다.
 43) 『高麗史』, 卷57, 地理2, 全羅道, 寶城郡.

〈참고문헌〉

- 『三國史記』.
- 『高麗史』.
- 『世宗實錄』.
- 『東國輿地勝覽』.
- 『宣祖實錄』.
- 『懲忿錄』.
- 『亂中日記』.
- 『李忠武公全書』.
- 『大東地志』.
- 『輿地圖書』.
- 『增補文獻備考』.
- 「大東輿地圖」.
- 국립해양문화재연구소(2009), 『고려 뱃길로 세금을 걷다』.
- 金京洙(1995), 『영산강 3백50리-물길따라 뱃길따라』(광주), 도서출판 향지사, 1995.
- 김경옥(2004), 『고하도』, 목포문화원.
- 大韓民國 水路局(1992), 『韓國沿岸水路誌』, 제3권(서해안편).
- 목포대학교 박물관(2007), 『고하도 유원지 조성 실시설계 지역내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
- 신성재(2006), 『弓裔政權의 軍事政策과 後三國戰爭의 전개』,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申虎澈(1996), 『後百濟 甄萱政權研究』,(서울), 一潮閣.
- 柳永哲(1997), 『高麗와 後百濟의 爭霸過程研究』,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李殷相譯(1989), 『完譯 李忠武公全書 下』,(서울), 成文閣.
- 趙成都(1982), 『忠武公 李舜臣』(서울), 南榮文化社.
- 정진술(2009), 『한국해양사(고대편)』(서울), 경인문화사.
- 정진술(2009-a), 『한국의 고대 해상교통로』, 한국해양전략연구소.

- 崔德源(1975), 『高下島の遺蹟研究』, 조선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崔碩男(1992), 『救國의 名將 李舜臣(下)』(서울), 敎學社.
- 최영섭(2007), 『이충무공 정곡 서린 민족성지 고하도』(서울), 도서출판 혼.
- 姜鳳龍(2002), 「押海島の 변영과 쇠퇴-고대·고려시기의 압해도-」, 『島嶼文化』, 제18집,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 姜鳳龍(2002-a), 「後百濟 甄萱과 海洋勢力-王建과의 海洋爭覇를 중심으로-」, 『歷史教育』 83輯, 歷史教育研究會.
- 金京玉(1995), 「木浦市の 歷史遺蹟」, 『木浦市の 文化遺蹟』, 국립목포대학교박물관.
- 김학래(2013), 「고하도(高下島)의 인문 지리적 고찰」, 『목포문화』 제140호, 목포문화원.
- 文秀鎭(1987), 「高麗建國期の 羅州勢力」, 『成大史林』 4, 成大史學會.
- 裴鍾茂(1987), 「新安地方의 歷史遺蹟」, 『新安郡의 文化遺蹟』, 국립목포대학교박물관.
- 백상훈(2013), 「고하도(高下島) 산성(山城)」, 『목포문화』 제140호, 목포문화원.
- 慎成幸(2007), 「태봉과 후백제의 덕진포해진」, 『軍史』 62호,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 이진규(2013), 「충무공이 조선수군을 재건한 성지 고하도(高下島)」, 『목포문화』, 제140호, 목포문화원.
- 李海濬(1995), 「목포의 역사-개항 이전사」, 『木浦市の 文化遺蹟』, 국립목포대학교박물관.
- 日野開三郎(1961), 「羅末三國の鼎立と對大陸海上交通貿易(4)」, 『朝鮮學報』, 20輯.
- 小野勝年 校註(1992), 白化文, 李鼎霞, 許德楠 修訂校註, 周一良 審閱, 『入唐求法巡禮行記校註』, (北京), 花山文藝出版社.
- Edwin O. Reischauer(1955), ENNIN'S DIARY-The Record of a Pilgrimage to China in Search of the Law, New York : The Ronald Press Company.

〈Abstract〉

Wang Geon's Naju Attack and Gohado

JEONG Jinsool

an advisory committee member,

the compilation committee of history of sea activity, ROKNA

Gohado(高下島) located in Yudal-dong, Mokpo-si, is the island where in 1597 Samdo-Sugun-Tongjesa(三道水軍統制使) Admiral Yi Sunsin reorganized Joseon navy stationing himself about a hundred days during Imjinwaeran(壬辰倭亂). At the time Joseon navy was destroyed after meeting the defeat at the sea battle of Chilcheon-nyang by Japanese navy. Now Gohado has the remains of the fortress and it is known to be mostly constructed by Admiral Yi Sunsin, but I have a different opinion about it for the following reasons.

The first is no reason for building a fortress only in Gohado as Admiral Yi Sunsin didn't have fortresses built in Hansando(island) and Gogeumdo(island) even though he set up naval stations there. Secondly, Admiral Yi Sunsin couldn't afford to construct a fortress in Gohado due to a short-term presence and having a small naval force with him at the time.

I estimate that the fortress in Gohado was built before Goryeo Dynasty. In 909, Wang Geon, an Admiral of Taebong Dynasty, and his navy advanced into Naju. They first occupied Jindo-gun and got a bloodless victory in Goido(island, 阜夷島). Then defeating the fleet lead by Gyeon Hwon of Hubaekje Dynasty at the sea battle of Deokjinpo, they secured Naju and the surrounding area. Therefore I insist that Goido at the time is Gohado.

Key word : Gohado, Goido, Wang Geon, Yi Sunsin, the sea battle of Deokjinpo

왕건의 나주 공략과 고하도

| 신성재 | 해군사관학교 교수
seong1970@daum.net

본 발표문은 발표자가 과거에 高下島 산성을 답사하는 과정에서 느낀 의문점에서 출발한다. 기왕의 연구에서는 이 산성을 이순신이 고하도에 주둔하던 시기에 쌓았던 성터로 보고 있다. 이에 반해 발표자는 고하도 산성이 이순신이 쌓은 산성이 아닌 고려 이전에 축조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순신이 이전에 머물렀던 한산도와 고금도에도 축성하지 않았던 점에서 보아 유독 고하도에 성을 구축할 이유가 없다는 점, 100여일에 불과한 짧은 주둔 기간과 적은 병력으로 성을 쌓을 여력이 없었다는 점, 『난중일기』에 축성 기록이 없다는 점 등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대안으로 909년 왕건이 나주를 공략하는 과정에서 梟夷島城 사람들이 항복해 왔다는 『고려사』의 기록에 의지하여 고하도=고이도로 파악하는 새로운 가설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가 안고 있는 문제점과 관련 기록에 대한 근거, 역사적 상상력 등을 바탕으로 참신하면서도 흥미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가 설득력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의문점 또한 해소되어야 하리라 본다. 토론자의 소임을 다하고 또한 논문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몇 가지 궁금한 사항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한다.

高下島를 皐夷島와 연결시키는 이유에 대하여

고하도에 존재하는 산성이 이순신 당대에 축성된 것이 아닐 가능성은 발표자가 제시한 몇 가지 문제점을 통하여 충분히 공감한다. 따라서 고하도에 남아 있는 산성에 대해 그 이전 시기에 축성된 성으로 이해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다. 이순신이 축성하였다는 견해와 관련해서는 그 역사적인 사실이 중요한 만큼 발굴조사를 통해 밝혀지면 될 것이다. 그런데 굳이 이를 『고려사』의 기록에 등장하는(909년) 고이도와 연결시키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일지 않을 수 없다. 먼저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한다.

高下島=皐夷島로 파악하는 첫 번째 근거에 대하여

발표자는 왕건이 909년에 고이도를 점령시에 나타나는 ‘성중인(城中人)’의 존재에 주목하여 당시 皐夷島에 성이 존재하였고, 이에 근거하여 고이도성을 곧바로 목포 고하도(목포 유달동 위치) 산성으로 비정하였다. 고이도에 대해서는 고하도와 별개로 신안군 荷衣島로 보거나(라이샤워 등 견해), 신안군 압해면 古耳島로 보는 견해가(강봉룡 등) 일찍이 제기되었다. 발표자의 견해대로 생각해보면 여지도 있겠으나, 고이도에 성이 존재한다는 이유만으로 고이도=고하도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후삼국시대에는 내륙지역은 물론 해안 도서지방에도 지방세력과 지방민들이 자위력을 확보하기 위해 축성한 성들이 많기 때문이다. 더구나 왕건은 당시에 압해도에서 영웅으로 추대받고 있던 능창을 포획하기도 하였고, 光州 塩海縣(함평군 해제면 임수리, 신안군 임자도 등으로 비정) 일대에서 활동하던 기간에는 후백제가 오월국으로 파견하던 선박을 사로잡기도 하였다. 진도에서 수군활동을 전개도 하였지만, 압해도과 주변 해역, 그 북서쪽에 위치한 신안군 일대에서도 적지 않은 수군활동을 벌였다. 이러한 일련의 수군활동 공간과 작전 해역의 범위

등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高下島=隗夷島로 파악하는 두 번째 근거에 대하여

발표자는 909년 왕건이 수행한 진도-고이도 점령시의 군사운용을 통해서도 고하도=고이도로 파악한다. 서해를 따라 남하한 왕건이 압해면 고이도를 지나쳐 멀리 떨어진 진도를 점령하고 다시 북상하여 고이도를 점령한다는 것이 군사운용상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고이도를 현재의 목포 앞바다에 위치한 고하도로 보아야 이런 병법상의 불합리가 해소된다고 본 것이다(배후에 위치한 진도 점령 → 목포 입구의 고하도(고이도) 점령 순). 하지만 여기에서도 생각해보아야 할 점이 있다. 우선 909년 왕건이 벌인 수군작전을 진도를 점령하고 곧바로 고이도를 점령한 작전으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연속되는 작전으로 볼 여지도 있지만, 시간 차이가 있었을 가능성도 있다. 왕건의 수군활동도 남하하면서 진도-고이도를 점령한 것이 아닌 우선 나주로 이동하여 방위태세를 확인하고, 여기서 출발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903년 처음 나주 점령시에 수비군을 두었다고 하는 기록으로 보아 이후로도 이 지역의 우호적인 세력들과 연대하여 방위를 지속하였을 것이다). 만약 이렇게 본다면 진도를 점령하고 북상하여 압해면의 고이도를 점령하는 것도 가능하다.

어느 도서를 먼저 점령할 것인가 하는 문제. 그것은 도서의 전략적 가치와 섬에 주둔하고 있던 상대군의 규모, 점령군의 군사적 목표 등이 고려되는 가운데 결정되었을 것이다. 고이도 점령시 성 주민들이 왕건 수군의 진용이 엄정한 것을 보고 싸우지 않고 항복해왔다고 하는 기록이 있는 데, 성에 주둔한 군사력이 미약했음을 의미한다. 수군작전을 수행하는 왕건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군사력 수준과 도서의 전략적 가치 등을 감안하여 점령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였을 것이다.

〈기타 소소한 궁금증에 대하여〉

1. 왕건의 나주공략과 진도·고이도 점령, 덕진포해전 등에 대하여
발표자는 왕건의 나주공략에 대하여 903년 처음 공격하여 이를 점령하였고, 909년에 이르러 진도와 고이도를 점령한 다음 덕진포에서 견훤의 수군과 싸운 것(덕진포해전)으로 서술하였다. 903년 최초의 나주진출과 909년의 진도·고이도 점령 시점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덕진포해전은 909년이 아닌 912년에 발발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고려사』의 기록이 시점별로 명확하게 서술되지 않아 마치 909년에 발생하였던 일련의 사건으로 보여지기도 하지만, 『삼국사기』 본기 기사에 912년에 궁예와 견훤이 덕진포에서 싸웠다는 기록이 있다. 보다 신빙성이 높은 증거는 『무위사선각대사편광탐비』의 비문에“(天祐) 9년(912) 8월에 前主(궁예)가 북쪽을 영원히 평정하기 위해” 친히 군사를 몰아갔다는 기록이다. 모두 912년에 해전이 발발하였음을 보여주는 근거들이다. 최근 위 선각대사의 행적을 기록한 금석문 기록을 검토하여 궁예가 덕진포해전을 지휘한 것으로 파악한 성과가 있어 주목된다(최연식).

2. “그는 먼저 진도군을 공략한 다음 고이도를 점령하고 여기에 함대를 주둔시켰다.” → 왕건이 함대를 고이도에 주둔시켰다는 근거는 무엇인가?

3. “덕진포해전의 승리로 태봉은 후백제 연해안의 제해권을 장악하게 되었다.” → 과도한 표현이 아닌가 싶다. 서남해역에서 군사적 우위를 점한 것은 분명하지만, 후백제 연해안까지 제해권을 장악한 수준은 아니었을 것이다. → “서남해역에 대한 해상권을 장악하였다.”